

碩士學位 請求論文

# 南勞黨의 赤化戰略에 關한 研究

— 4.3 事件과 關聯하여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鄭 敏 惠

1985年度

# 南勞黨의 赤化戰略에 關한 研究

— 4.3 事件과 關聯하여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鄭 敏 惠

指導教授 高 性 俊

1985年 月 日

鄭敏惠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김항원



副審

고흥석



副審

고성준



1985年 月 日

# 目 次

第一章 序 論 .....	2
第一節 問題의 提起 .....	2
第二節 研究範圍 및 方法 .....	3
第二章 南勞黨의 登場背景과 過程 .....	5
第一節 朝鮮共產黨 再建 .....	5
第二節 朝鮮共產黨과 左翼活動 .....	13
第三節 左翼 3 黨合黨과 南勞黨의 登場 .....	18
第三章 南勞黨의 赤化戰略과 戰術 .....	24
第一節 南勞黨의 組織體系 .....	24
第二節 南勞黨의 合法鬭爭 .....	29
第三節 南勞黨의 非合法鬭爭 .....	34
第四章 4·3 濟州道暴動事件 .....	41
第一節 歷史的 背景 .....	41
第二節 南勞黨濟州道支部의 合法鬭爭 .....	43
第三節 南勞黨濟州道支部의 非合法鬭爭 .....	49
第五章 結 論 .....	56
參 考 文 獻 .....	59
英 文 抄 錄 .....	61

# 第一章 序 論

## 第一節 問題의 提起

東洋社會에 있어서 흔히 歷史는 鑑戒이라고 한다. 歷史를 통하여 自我를 새롭게 인식하고 自國의 歷史창조의 긍정적 현상과 退嬰의 否定的 現象을 診斷하기 때문이다. 번영과 패배의 자취는 그 나라 歷史를 통하여 생생하게 浮刻되어야 한다.

“解放”이라는 감격적인 단어는 우리 歷史에서 分斷時代를 豫告하는 前奏曲이었다. 解放을 祖國의 獨立으로 理解한 것은 한국민들의 지나친 誤解였다. 왜냐하면 해방은 우리의 獨立운동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解放者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日本이 한국에서 물러간 사실에 압도되어 解放者들의 事實上的 永續的인 힘에 對한 거의 完全한 무시가 해방직후 政治的 展開의 어마어마한 複雜性으로 이어진다.<sup>1)</sup>

日帝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地下에서 派閥싸움을 계속하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이 되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 다른 方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45年9月11日 장안파와 재건파의 表面上의 結合은 政權장악이라는 궁극적 투쟁목표를 向한 統一戰線이었다. 統一戰線은 同志를 增大시키고 敵을 孤立시키는 代表的 戰術<sup>2)</sup>이므로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간에 그들의 目標를 向한 통일 전선조직체에 흡수해야 했다. 이것은 建準에 密着하고 人共을 수립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sup>3)</sup>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美國과 蘇聯은 해방을 가져다준 救世主였다. 이들은 해방자들의 의도와 욕망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理想과 포부에 따라 한국에 獨立政府를 만들어 내려고 애썼다. 이에 對한 解放者들의 回答은 “信託統治”라

註：1)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297.

2) 丁世鉉, “毛澤東의 對外觀 展開에 關한 研究”(서울: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2), p. 7.

3) 金點坤, 「韓國戰爭과 勞動黨 戰略」(서울: 博英社, 1973), p. 32.

는 굴욕적인 계획이었는데, 민족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하므로써, 공산주의자들은 支持하므로써 友敵의 개념이 分明하게 드러났다.

1946년에 들어와 美·蘇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두 解放者들은 南·北韓을 自身の 政治定向에 맞는 하나의 政治的 實體를 만들기 爲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北韓에서는 소련이 金日成을 中心한 소련派—甲山派의 權力을 強化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한에서는 공산주의세력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남한의 공산주의세력은 美軍政의 強硬한 態度로 弱化的 길을 밟게 되었으며 이와 同時에 그들의 세력이 弱화되면 될수록 강경한 태도로 美軍政에 對抗하였다.

1946年7月 남노당의 赤化戰略을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朴憲永이 「美帝 打到」를 내걸고 폭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47年은 남노당에 依한 파업들과 소요로 혼란상태가 계속되었으며 UN에 依한 南韓만의 單獨選舉決定은 南勞黨으로 하여금 더욱 과격한 非合法的 폭력투쟁의 路線을 따르게 하였다. 이 5.10選舉 反對鬭爭의 과정에서 發生한 「4.3濟州道暴動事件」은 철저한 무장폭력전술로 轉換하게 하는 決定的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6.25 動亂으로 이어졌다.

以上の 脈絡에서 本論文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糾明해 보려는데 意義를 두었다.

첫째, 解放後 美軍政秩序下에서 南韓의 共產主義運動은 무엇이 中心이 되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둘째, 남한공산주의운동이 朴憲永主導下의 남노당中心이라면, 남노당의 黨기본노선은 어떠한 形態로 變化되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戰略戰術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셋째, 남노당과 當時 北韓地域을 占領하고 있던 蘇聯軍과는 어떠한 關聯을 맺고 있었으며 北韓공산주의자들과의 연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넷째, 4·3事件은 남노당의 黨기본노선과 어떠한 關係에서 발발된 것인가?

다섯째, 이 경우 제주도의 歷史的·狀況의 特殊條件과 어떤 關聯이 있으며 이것이 주는 歷史的 教訓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中心으로 論文을 展開해 보려 한다.

---

註：4) 金學俊, “韓國戰爭과 北韓의 政治”(서울:北韓研究所, 1979), 北韓學報 第三輯, p. 13.

## 第二節 研究範圍 및 方法

本研究는 南勞黨의 戰略戰術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時期的으로는 1925年 朝鮮共產黨이 創黨된 때부터 始作하나, 重點的으로 取扱하고 있는 것은 1945年 解放直後부터 1948年 4·3事件까지 만 3년동안 南勞黨의 跋行過程을 다루게 된다. 第二章에서는 當時 南한에서 전개되고 있던 정치상황적 배경에서 남노당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登場하게 되었는가를 糾明하게 된다. 第三章은 남노당이 그들의 赤化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어떠한 組織體系를 갖추고 合法·非合法鬭爭을 감행했으며 이 투쟁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 變化되어 나갔는가 하는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第四章에서는 4·3事件의 性格을 간단히 規定하고 濟州道の 歷史的 背景和 남노당제주도지부의 合法鬭爭을 說明하였으며 4·3사건으로 表出되고 있는 남노당 제주도지부의 非合法鬭爭을 전개하게 된다.

本論文의 研究方法으로는 남노당이 계획하고 使嗾했거나 아니면 內外的 狀況變化에 對處해야만 했던 일련의 事件들을 中心으로 남노당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歷史的 接近法에 의한 文獻分析方法을 擇하고 있다.

南勞黨은 創建 첫날부터 合法과 半合法 또는 非合法活動을 併行했기 때문에 資料가 極히 制限되어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公式文件들도 共產黨 特有的 虛構的, 宣傳的 문구로 가득차 있는 것이 大部分이었다. 特히 4·3事件은 사건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한국에서 決定的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것은 없으며<sup>5)</sup> 다만 산만하게 흩어진 기록과 단편적으로 傳해지는 道民들의 證言뿐이었으므로 本論文의 범위를 크게 制限하고 있다.

註：5) 4·3사건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4·3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著書와 論文이 나와 있는 정도이다.

논문으로는 미국의 「John Merrill」教授가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1980)」에 發表한 “The Chejudo Rebellion”이 있으며 共產주의자의 시각에서 나온 단행본으로는 金民柱·金奉鉉 共著, 「濟州道 人民들의 4·3 武裝鬭爭史」(東京：文友社, 1963)과 金奉鉉, 「濟州道 血의 歷史 4.3 武裝鬭爭의 記錄-」(東京：國書刊行會, 1978)이 있을 뿐이다.

## 第二章 南勞黨의 登場 背景과 過程

### 第一節 朝鮮共產黨 再建

#### 1. 日帝下의 朝鮮共產黨

1917年 10月 러시아 볼셰비키革命의 영향은 우리나라에까지 波及되어 1920年頃부터는 國內外에 공산주의 씨클이 組織되고 그 운동이 活潑히 進行되기 시작했다. 初期의 공산주의운동은 3:1운동以後 反日民族解放運動의 한 形態로 시작되었으며 우후죽순처럼 簇出한 여러 단체에 依하여 展開되었다.

1922년에 組織된 新思想研究會, 서울청년회, 일본 東京의 北星會와 1924年 조직된 朝鮮青年總同盟, 1925年 組織된 火曜會<sup>6)</sup>, 北風會, 勞動黨, 無產者同盟과 4개 단체 統合으로 된 合同委員會 등이 있으며 大衆集會로서는 1925年의 朝鮮民衆運動者大會 등이 그 代表的인 것들이었다.<sup>7)</sup> 當時의 反日民族解放運動은 민족주의단체에서도 그랬거니와 사회주의단체에서도 自體組織上의 缺陷, 指導力量의 不足, 思想的 統一과 指導理念의 缺如 등으로 그 鬭爭形態에 있어서나 鬭爭組織에 있어서 初步的 範圍를 벗어나지 못했다. 말하자면 社會主義運動의 太初的 混沌期였던 것이다.<sup>8)</sup>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이 대체로 軌道에 올라서게 된 것은 1925年 4月 17日 「朝鮮共產黨」이 組織되면서 부터였다. 비록 朝鮮共產黨이 結成은 되었으나 自體內的 파벌싸움에다 日帝의 1925年 11月, 26年 6月, 28年 2月과 7月等 4차례에 걸친 검거로 거의 괴멸되고 말았다.

日帝下에 있어서 4차례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組織과 해체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第1次 및 第2次 朝鮮共產黨

第1次 朝鮮共產黨은 火曜會를 中心으로 北風會, 無產者同盟, 勞動黨과 合作하여

註: 6) 이는 「新思想研究會」를 모체로 하여 1924年 11월 19일 '마르크스' 生日을 期하여 「화요회」로 改稱하였음.

7) 洪泰植, 「韓國共產主義運動研究의 批判」解放前篇 (서울:三星出版社, 1969), p.360.

8) 中央情報部, 「北韓對南工作史」第一卷 (서울:中央情報部, 1972), p.32.

全國新聞記者大會를 개최한다는 名目下에 金在鳳, 金燦·曹奉岩, 金若水, 趙東祐等 15名이 會合하여 1925年 4月 17日 組織되었다. 이들은 1925年 6月 코민테른의 承認을 받으면서 공산주의운동의 主流를 장악하는 同時에 공산당의 헤게모니를 잡게 되었다.

한편 조선공산당 創黨 다음날인 4月 18日에는 朴憲永·林元根·金丹浩等 화요회系 一色으로 「高麗共產青年會」를 組織하여 조선공산당보다 더욱 積極的인 活動을 벌여 成功的인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하였다.<sup>9)</sup>

그러나 1925年 11月 新 梟州에서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의 組織은 日警에 發覺되어 幹部 60餘名이 체포되므로써 와해되었다.

第1次檢擧에서 체포를 免한 同黨責任秘書 金在鳳은 1925年 12月 「第2次朝鮮共產黨<sup>10)</sup>」을 結成하였으나 6·10만세사건을 계기로 一黨 135名이 검거되므로써 파멸되었다. 이에 따라 火曜會系를 主軸으로 한 공산주의운동은 極度로 衰微하여졌고 反面에 서울派가 대두하게 되었다.<sup>11)</sup>

#### 나. 第3次 朝鮮共產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요회계 中心의 공산당이 1, 2次에 걸친 검거로 파괴되자 1926年 12月 서울派의 崔昌益, 鄭栢, 上海派의 韓偉健, 梁明, 1月會의 安光泉, 그리고 M·L系의 高光洙, 金俊淵等이 주동이 되어 金綴洙를 책임비서로 第3次 朝鮮共產黨을 조직하였다. 俗稱 「ML黨<sup>12)</sup>」이라고 하는 제3차 조선공산당은 1927年 5月 코민테른의 승인을 얻었으며 黨勢를 擴大, 強化하기 爲해 國內各道와 滿州·上海, 日本支部 設置를 計劃하는等 積極的 活動을 보였지만 1928年 2月 日警에 依해 瓦解되었다. 한편 고려공산청년회는 제2차 검거에서 거의 潰滅되었지만 金綴洙의 제3차 공산당組織과 더불어 高光洙等에 依해 1927年 3月에 재건되었었다.

註：9) 한창수編,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韓國現代史 史料集I (서울:지양사, 1984) pp.67~68.

10) 제2차 공산당은 當時 조선일보 전주 지국장이었던 강달영을 上京시켜 책임비서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강달영黨」이라고도 부른다.

11) 中央情報部, op.cit.,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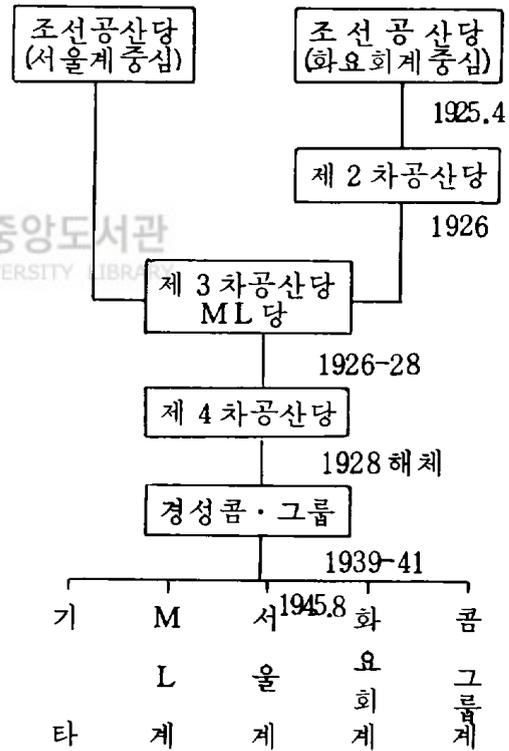
12) 사실상 ML黨이란 명칭은 없었다고 한다. 1928年 2月 이들 당원들이 서울종로경찰서에 검거됐을 때 동아일보에 「ML당 검거」라는 기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ML이란 맑스·레닌의 첫자를 딴 略稱이다.

다. 第4次 朝鮮共產黨

第3次檢學가 進行되는 동안 車今鳳, 安光泉等 數名の 党幹部는 1928年 4月 「第4次 朝鮮共產黨」을 組織하여 서울과 地方의 組織을 整備함과 同時에 外廓團體인 學生科學研究會를 結成하여 서울市内 各 中學校의 學生을 結束하여 高麗公산 청년회의 指導下에 同盟休學과 示威鬪爭을 推進하다가 1928年7月 검거되므로써 붕괴되었다.<sup>13)</sup>

라. 조선공산당의 再建運動

以上과 같이 조선공산당은 日帝의 심한 日帝下朝鮮共產黨의 조직과 파벌 계보<sup>14)</sup> 탄압으로 幹部와 그 前衛分子를 잃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운동은 地下에서 小數에 依해 散發的으로 進行되게 되었다. 조선공산당을 操縱하던 코민테른도 1928年 가을 同黨과 高麗公산청년회에 對해 分派鬪爭에 沒頭하고 實際鬪爭을 등한히 하였다는 理由로 그 승인을 取消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재건운동은 1928年 12月7日 코민테른의 指示에 따른 것이었다. 即 코민테른은 朝鮮共產黨組織에 關한 政策으로서 派閥鬪爭을 終熄시키고 党内 知識分子를 排斥하여 노동자·농민에 기초를 둔 党的 再組織과 朝鮮의 革命運動은 土地革命을 中軸으로 하는 브르조아民主主義革命의 段階라는 내용의 이른바 「12月 테제」



(朝鮮에 있어서의 革命的 勞動者 및 農民의 여러 任務에 對하여)를 下達하였다. 12月테제의 發表後 日警의 團束이 더욱 強化됨에 따라 党 재건운동은 反帝·反

註：13) 中央情報部, op.cit., p.38.

14) 김남식, 「南勞黨研究」(서울: 돌베개, 1984), p.15.

封建的 赤化 勞農運動으로 轉化하는 傾向이 짙어지기 始作했다.

이런 가운데 殘党에 依한 共産党 組織工作은 繼續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929年 李明壽等의 俗稱 <第4次 後續党>, 金綴洙等의 <朝鮮共産党組織委員會>, 1931年 金鎭盤等의 <國際赤色職業同盟朝鮮支部>, 1932年 金致延·金三奎等의 <朝鮮共産党再建準備會>等의 조직 활동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日警에 발각되어 大部分의 主動者가 검거되므로써 公産주의 운동은 退潮期에 접어 들기 시작했다.<sup>15)</sup>

그러다가 1937年頃 李觀述, 李鉉相, 金三龍, 權五稷等이 所謂 <京城콤·그룹>을 組織하고 朴憲永을 責任者로 選出하면서 党再建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1940年, 41年에 걸쳐 검거되므로써 해방될 때까지 명맥이 끊기고 말았다. 콤·그룹은 党再建을 爲한 조직으로서는 규모가 가장 컸으며 公産주의 운동의 쇠퇴기에 모든 公産주의자들이 운동선상에서 離脱 또는 청산하고 말 때 新進들을 포섭하여 党재건에 힘썼던 것이다.<sup>16)</sup> 이 콤·그룹은 국내운동자의 最後의 決算的 集結體이 었으며, 해방후 朝鮮公産黨의 基本핵심을 이루었다.<sup>17)</sup>

## 2. 朝鮮共産黨再建과 朴憲永의 8月테제

日帝下에서 朝鮮公産黨의 재건운동에 主導的 役割을 遂行한 公産주의자의 하나는 朴憲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또한 解放後 南北韓의 政治에 있어서 主要한 人物이 었으며, 南勞黨의 赤化鬭爭을 指揮한 事實上의 指導者였다.

박헌영이 公産주의 운동을 시작한 것은 上海에서 1921年 高麗公産黨에 加入하고 高麗公産청년동맹에 責任秘書로 選出된 때부터였다. 1922年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제1차 極東人民代表者大會에 參加하고 歸國中 日警에 체포되었다가 24年 釋放된 그는 25年 4月 25才의 청년으로 朝鮮公産黨 創立멤버가 되었고 곧 高麗公産청년회의 책임비서가 되었다. 따라서 그는 弱年에 한국公産주의 운동의 初期段階부터 깊이 關與한 셈이었다.

박헌영은 25年 11月 朝鮮共産黨에 對한 日帝의 검거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豫

註: 15) 中央情報部, op.cit., p.38.

16) 張福成, 「朝鮮共産黨派爭史」(서울: 돌베개, 1984), p.38.

17) Ibid, p.39.

審中에 精神分裂症을 나타냄으로써 病保釋된 것을 利用하여 29年8月 치엔타오로 脱出하는데 成功했다. 그곳으로부터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 病을 치료하면서 韓人小學校 教員으로 奉職했다. 病이 完快되자 33年1月 上海로 돌아와 그의 오랜 共産주의혁명 同志인 金丹治와 歸國後의 朝鮮共産당 재건문제를 모색했다. 그러나 그는 귀국직후 체포되었으며 다시 釋放된 것은 1939年이었다.<sup>18)</sup>

그는 釋放과 더불어 國內에 남아있는 共産주의자들의 再糾合에 나서 마침내 콤 그룹을 조직하여 朝鮮共産당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41年 後 半 日警에 의해 조직원 大部分이 체포되었다. 박헌영은 간신히 검거를 모면하여 해방이 될때까지 全南 光州의 한 벽돌공장에 勞動者로 숨어지내게 되었다.

45年 8月 15日 해방을 맞이한 박헌영은 콤·그룹과 화요회의 中心人物을 糾合하고 「朝鮮共産黨再建準備委員會」를 結成하면서 그가 構想한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라는 提제를 제기하여 暫定的 政治路線으로 통과시켰다.

所謂 「8月提제」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南勞黨의 合法鬭爭時期에 있어서 赤化戰略에 理論的 基本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活動指針이었다. 8月提제의 內容은 共産주의이론과 戰略戰術에 바탕을 둔 코민테른의 12月提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8月提제의 內容<sup>19)</sup>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現情勢： 解放은 우리민족의 주체적·투쟁적 産物이기 보다는 進歩的 민주주의 국가들인 蘇·英·美·中等 聯合國勢力에 依해 實現됐다.

이것은 當時 소련當局의 직접통제下에 있던 玄俊赫派의 「朝共平安南道黨擴大委員會」회의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미국과 영국을 “모호한 어투”로 다루었다는 것이었다.<sup>20)</sup>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決定的 役割에 依해서만 解放될 수 있었다라는 對照的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南·北勞動黨間의 戰略·戰術上 근본적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sup>21)</sup>

註： 18) Dae-Sook Suh, op. cit., pp. 191~192.

19) 金南植編, 「南勞黨研究資料集」, 第一輯 (서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pp. 15~21.

20)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The Movement*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249.

21) 김남식, 「南勞黨研究」(서울: 돌베개, 1984), p. 24.  
미국에 대한 박헌영의 이런 견해는 박헌영이 월북했을때 우경기회주의라고 공박당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미국의 고용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처단 당할때 중요한 구실의 하나가 되었다.

(2) **朝鮮革命의 現段階** : 오늘날 조선은 브르조아 민주주의혁명 단계에 있다. 주된 課業은 민족의 完全獨立과 土地문제의 革命的 解決에 있다.

이것을 보면 박헌영이 공산주의혁명 이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토지의 국유화문제는 오직 사회주의단계에서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當時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은 식민적·봉건적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現段階를 反帝·反封建革命의 段階라고 表現했어야 더 적합했을 것이다. 혁명의 잘못된 성격규정으로 맑스-레닌주의의 戰略戰術의 견지에서 보면 右傾的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은 不可避한 것이었다.<sup>22)</sup>

(3) **조선공산주의의 現狀과 缺點** : 과거 혁명운동은 國內外할 것 없이 統一的인 活動을 못했다. 파벌분자들은 일제의 탄압이 두려워 변절하거나 사상을 포기하고 민족과 노동계급을 배반,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이런자들이 해방뒤 혁명적 언사를 쓰며 다시 나타났다.

박헌영은 당조직 문제에 있어서도 조직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黨規律문제를 비롯하여 中央 및 下部組織에 까지 전혀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레닌의 당조직 원칙에 依하면 合法活動時期의 黨은 반드시 民主主義 中央集權主義原則에 依해야만 되는데 박헌영은 지하당 시절의 자기류의 조직개념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sup>23)</sup>

(4) **우리의 任務** : ①노동자·농민의 불평불만을 利用하여 그들을 組織化하는 強力한 대중운동을 전개한다. ②黨組織을 노동자·농민속에 뿌리박으며 기초조직은 工場에 둔다. 同時에 大衆的 補助團體를 조직하는 조직사업을 벌인다. ③右傾的 機會主義者, 即, 社會改良主義者와 極左的 左傾主義者들과의 兩面戰線鬭爭을 展開한다. ④노동자·농민은 민주주의적 독재라는 戰略目標를 爲하여 프로레타리아 헤게모니 장악 투쟁을 전개한다. ⑤ 民族統一戰線의 結成으로 수립된 「人民政權」을 爲한 투쟁을 全國的으로 展開한다.

(5) **革命이 높은 階段으로 轉換하는 문제** : 조선혁명이 브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인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速히 轉換하기 爲하여 反帝 ·

註: 22) Ibid., p.25.

23) Ibid.

反封建鬭爭을 하며, 民主主義的 獨裁政權을 수립하고 민족적 統一戰線의 實現을 強調한다.

再建委가 發足되고 당재건을 위해 뭉치자는 내용의 8月에게가 公布되자 공산주의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日帝下에서 冬眠頻死狀態에 빠졌던 공산주의자들이 解放이 되어 合法的 공개정치투쟁의 局面에 直面하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分派主義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방직후 團合을 보이지 못하고 크게보아 두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sup>24)</sup>

첫째 갈래가 이른바 「長安派共產黨」이었다. 李英, 鄭栢等을 中心으로 한 서울系 및 ML系공산주의자들은 해방 다음날인 8月16日 조선공산당을 結成했다. 제일 먼저 結成되기는 했지만 長安派의 權威는 높지 못했다. 黨指導部가 거의 모두공산주의운동의 一線에서 脫落해 있던 部類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갈래는 前述한 朴憲永中心의 再建黨이었다. 朴憲永은 화요회系 및 콤-그룹系를 中心으로 8月20日 「朝鮮共產黨再建準備委員會」를 組織하고 조선공산당의 正統性을 主張하면서 長安派共產黨의 解體를 要求하고 나섰다.

朝鮮共產黨의 統一, 再建을 爲한 격렬한 論爭<sup>25)</sup>이 進行되는 가운데 9月11日 朴憲永派는 長安派指導者들의 끊임없는 反撥을 無視하고 統合 朝鮮共產黨의 結成을 발표했다.<sup>26)</sup> 9月14日에는 黨機關紙로서 「解放日報」를 創刊하고 여기에 黨發足에 따른 聲明을 發表했다.

① 조선공산당은 조선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병사, 인텔리겐차等 一般 근로 인민의 정치·경제·사회적 利益을 옹호하며 生活의 급진적 改善을 爲하여 鬭爭한다.

② 조선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모든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유발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註：24) 金南權, 「實錄南勞黨」(서울：新現實社, 1975), pp.4~16.

25) 45年9月8日 장안파 공산당이 주최한 “熱誠者大會”에서 朴憲永은 黨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26) 이날 발표된 조선공산당 주요부서와 간부는 다음과 같다.(주로 朴憲永의 화요회계 콤그룹계 中心으로 조직되었음을 볼 수 있다.)

· 총비서：朴憲永(화요계·콤그룹)·정치국：朴憲永, 김일성, 李舟河, 武亭, 費進(ML계), 최창익(서울계·연안독립동맹), 이승엽(화요계), 권오설(화요계)  
· 조직국：朴憲永, 이현상(콤·그룹계), 김삼룡(콤·그룹계), 김형선(화요계)  
· 서기국：이주하, 허성택(콤·그룹계), 김태준(콤·그룹계·연안독립동맹), 이구훈(콤·그룹계), 이순금(콤·그룹계), 강문석(콤·그룹계)

③朝鮮人民의 利益을 존중하는 革命的, 民主主義的 人民政府를 확립키 위하여 싸운다.

④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통하여 조선노동계급의 完全解放으로서 착취, 억압,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사회의 建設을 最後의 目的으로 하는 人類史的 任務를 主張한다.

이어서 9月25日 朝鮮共產党中央委員會는 朴憲永이 作成한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를 別 修正없이 「政治路線에 對한 決定(暫定的)」으로 採擇했다.

조선공산당이 재건되므로써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中央은 적어도 表面上으로는 조선공산당과 박헌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궁극적 권위의 중심은 평양과 소련군사령부에 있었다. 大部分의 경우 조선공산당의 최종적 정책결정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소련의 지배는 38以北지역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黨에 對한 지배는 남북 모두에 미쳤다. 따라서 남한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급인사들의 비밀 평양왕래가 물결을 이루었고 특수지령을 휴대한 黨要員들이 자주 남쪽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중앙본부의 소재지 서울을 점령한 것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에 黨의 成長과 戰術은 미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공산당의 입장으로 보면, 서울의 미군점령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사태였다.

## 第二節 朝鮮共產黨과 左翼活動

### 1. 呂運亨과 建國準備委員會

形式上 共產黨을 再建한 朴憲永中心의 朝鮮共產黨은 本格的으로 政權장악에 挑戰하기 始作했다. 그런데 이들은 獨自的인 政權樹立을 할 수 있는 強力한 組織糾合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呂運亨을 中心으로 이미 組織되어 있던 運國準備委員會에 參加하여 이를 變質시켜 政權을 찬탈한다는 戰術을 擇하였다.<sup>27)</sup>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爲해 그들은 建準의 各組織에 자기 세력을 대거 가담시켰다. 뿐만 아니라 建準內 呂運亨系 반대세력에 壓力을 加하여 建準 자체를 弱화시키는 工作도 併行하였다.

日帝의 敗亡이 확실해지자 엔도(遠藤柳作) 政務總監과 그의 주요고문들은 저명한 韓國민족주의자를 초청하여 治安維持의 責任을 떠맡기기로 결정했다. 일본관리들이 選擇한 세사람은 呂運亨, 安在鴻, 宋鎮禹였다. 이 3人은 모두 잘 알려진 오랜 政治的 經歷의 所有者들이었다.<sup>28)</sup> 當時 呂運亨의 大衆的 人氣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열기를 내뿜었다. 과거의 抗日鬪爭經歷, 대중을 사로잡는 품모와 웅변, 青年·學生들에게 친숙감을 주는 흡인력, 建國同盟이라는 지하단체 리더였다는 神秘感等 亂世를 克服할 수 있는 政治家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sup>29)</sup> 南京의 金陵大學을 졸업한 그는 1919年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 金奎植을 급파하는 功을 세우므로써 最高의 政治的 名聲을 얻었다. 그뒤 그는 여러 국제회의 代表로서, 日本에서는 韓國 民族주의의 代辦人으로써, 그리고 中國에서는 急進的 韓人團體의 열성적인 일꾼으로서 활약했다. 上海의 政治活動으로 1930年 日警에 체포되어 3年間 복역한 後 출옥하여 「朝鮮中央日報」의 사장이 되었다. 呂運亨은 헌신적 좌익민족주의자로서 以後 重要한 政治的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다.<sup>30)</sup>

註：27) 김남식, 「南勞黨 研究」, op. cit., p. 39.

28) Scalapino and Lee, op. cit., p. 233.

29) 李敬南, “해방政局 幕前幕後 人間군상”, 政經文化 1985年 8月號, p. 141.

30) Scalapino and Lee, op. cit., p. 234.

建準은 온건한 민족주의자인 宋鎮禹가 일본의 제의를 거절하므로써 안재홍의 도움을 받은 여운형에 依해 8月17日 정식 發足되었다. 이 때 송진우의 主張은 在 重慶 金九政府를 合法政府로 봉대하는 것이었으므로 新生政府수립을 주장하고 있는 여운형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8.15政局의 기본줄기인 좌·우分裂의 序曲이었다.

以後 建準은 短時日內에 全國的 組織과 外廓團體를 急速히 擴大하여 상당한 세력으로 浮刻되고 점차 政治色이 짙어지면서 受權기관으로서의 作業을 서둘렀다.<sup>31)</sup>

박헌영이 黨재건공작에 한창 부심하고 있던 45年 8月20日 當時 國內外정세는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그로서도 이러한 건준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공산당은 建準과의 제휴를 強化하는 한편 자기파를 보다 많이 건준조직에 參與시키므로써 이를 공산주의자의 영향아래 움직이게 하여 장차 건준을 공산주의정부로 轉換시키기 爲해 적극적인 工作을 시도했다. 한편 呂運亨도 조선공산당과의 제휴를 통해 建準組織을 強化할 必要가 있었다.<sup>32)</sup>

이에 따라 建準은 8月22日 더욱 左傾化된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9月3日에는 安在鴻系가 退陣<sup>33)</sup>하고 공산주의자를 대폭 增員하므로써 여운형은 극좌분자들의 포로 아닌 포로가 되었다.

여운형이 건준 발족 當時에 모색했던 좌·우合作的 좌표는 이리하여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註：31) 金點坤, 「韓國 戰爭과 勞動黨戰略」 (서울: 博英社, 1973), p. 26.

건준의 지방조직인 인민위원회가 8月31日까지는 남북에 걸쳐 145개가 조직되었다. 이 무렵에 해외 임시정부의 오랜 존재에도 불구하고 건준이 戰後 한국정부의 기초를 형성하리라는 징후가 현저했다.

32) 金南植, 「南勞動黨 研究」, op. cit., p. 43. 여운형은 건준의 중앙조직 강화의 필요성, 소련군의 早期 北韓進駐와 서울入城 가능성, 臨政 봉대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박헌영과 제휴했다.

33)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大韓民國 政黨史」 (서울: 1968), p. 109.

建準副委員長 안재홍의 탈퇴성명: “건준이 점차로 편향된 성격, 특히 좌익세력 집결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 2. 朝鮮人民共和國의 出現

45年 9月 4日 박헌영은 呂運亨, 鄭栢, 許憲과 밀회하여 建準을 母體로 「조선인민공화국」 창설을 合意하였다.

이에 따라 9月 6日 全國人民代表者大會가 개최되고 55名의 中央人民委員과 그 후보위원, 고문들이 選出되었다. 그뒤 中央人民委員會는 主要幹部와 내각부서 책임자를 選出하여 政府를 수립했다. 이른바 「朝鮮人民共和國」이 탄생된 것이다. 表面上으로는 右翼이 中央에 잘 안배되었다. 오랫동안 한국민족주의의 상징이었던 李承晩은 主席에 選出되었고 副主席으로는 여운형이 뽑혔다. 金九, 金奎植, 申翼熙같은 海外亡命家들도 金性洙, 안재홍, 조만식等 國內의 온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政府部署 또는 中央人民委員會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55名의 중앙인민위원 중 39名이, 그리고 후보위원 20名中 16名이 共產黨員이었다.<sup>34)</sup>

人共을 조직함에 있어 조선공산당이 노린 戰術的 目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sup>35)</sup> 첫째, 呂運亨이 表面上 영도하고 있는 建準을 해체시키고 국내정치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둘째, 美軍進駐를 앞두고 人共國이라는 권위기관을 확립하여 美軍과의 흥정의 고지를 마련해 둔다. 셋째, 중국에서 歸國할 임시정부와 同格의 政府를 표방하여 臨政의 권위를 끌어내린다. 넷째, 8.15後 20日동안 지방에 조직 확산된 建準을 인민위원회로 둔갑시켜 일거에 全國的 조직을 구축한다. 다섯째, 人共조직에 저명한 민족주의자들을 안배하여 국민대중을 현혹시키고 그들이 人共參與를 거부할 경우 反人民行爲者로 규탄할 수 있는 함정을 마련해 둔다.

공산주의자들은 建準을 매개로 통일전선전술을 채용했던 것이다. 人共의 수립으로 공산당은 有利한 高地를 점령할 수 있었다. 따라서 人共에서의 공산주의자의 役割은 擴張 深化되어 갔다. 실상 朴憲永의 長安派에 對한 比較的 수월했던 승리는 소위 人共안에서 그가 수행한 決定的 役割 덕택이었다. 當時 呂運亨의 측근이었던 李東華에 依하면 呂의 同意下에 공화국의 마스터플랜을 作成한 사람은 바로 박헌영이었다. 박헌영 자신도 9月 8日의 朝共會合때, 자신이 공화국 수립에 決定

註：34) Scalapino and Lee, op. cit., p. 239.

35) 李京南, op. cit., p. 141.

的 役割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공산주의자들이 공화국 組織體系의 頂點에서 指導的 役割을 했다면, 그 下部水準에서도 그들이 重要的 役割을 했을 것이다. 各地의 인민위원회로부터 올라온 보고는 공산주의자들이 郡이나 市水準에서 委員長, 副委員長 자리를 많이 차지했음을 보여주었다.<sup>36)</sup>

### 3. 人共和 美軍政

美占領軍이 韓國에 도착한 것은 45年 9月9日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人共이라는(38線以南에 있는 유일한 合法政府라고 主張하는) 統一戰線組織을 다루어야 했다. 軍政관리들은 人共을 朝鮮共産黨이 조종하는 조직으로 간주했으며 韓國內의 어떠한 黨이나 團體도 承認할 意思가 없음을 分明히 밝혔다.<sup>37)</sup>

이러한 美軍政의 態度에도 불구하고 人共은 道·市·郡에 이르는 強力한 地方人民委員會의 조직에 迫車를 加하였다.

45年 10月末頃에는 7道12個市131郡에 인민위원회가 結成되었다. 下部體系가 갖추어지자 中央人民委員會는 ①政權讓授와 軍政의 조속한 철폐 ②日本人 財産의 沒收 ③소작료의 3.7制 實施<sup>38)</sup>를 主張하고 나왔다. 人共和 美軍政의 反目이 씩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대한 구체적 행동으로 美軍政當局은 아놀드(Arnold) 소장을 보좌할 고문으로 10名의 온건파 내지 보수주의자들을 起用했는데 여기에서 유일한 좌익인사는 呂運亨뿐이었다. 10月10日에 아놀드소장은 人共을 否定하는 강경한 성명을 發表<sup>39)</sup>했으며 27日에는 民政長官 프레스코트대좌가 人共을 '國'으로 認定할 수 없으니 '國'字의 삭제를 要求하였다.

人共은 出發부터 공산당의 強力한 統制下에 있었지만 9월에 비해 11月경의 인공은 明白한 공산당의 기구로 發展되었다. 이 當時 공산당의 정권장악 전술

註 : 36) Scalapino and Lee, op. cit., p.247.

37) Ibid., p.245.

38) 김남식, 「남노당 연구」, op. cit., p.117.

39) "38도以南의 조선땅에는 오직 한 政府가 있을 뿐이다. 이 정부는 맥아더장군의 포고와 하지장군의 발령과 군정장관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정당히 수립된 것이다. 자칭 관리, 경찰단체, 전 인민을 대표한다는 크고 작은 대회, 자칭 조선인민 공화국 정부등은 전혀 권위도 세력도 없으며 또는 실재하지도 않는다."

은 平和的인 合法鬭爭이었으므로 美軍政과의 正面對決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련의 命令이기도 한 것이었다.

11月12日에는 呂運亨이 갑자기 人共을 탈퇴하고 人民黨의 結成을 發表했다. 이에 따라 人共의 주요人物로 박헌영과 허헌만이 남음으로써 人共은 完全한 公산당의 기구로 變해 버렸다.

美軍政과 人共의 관계가 決定的으로 惡化된 것은 11月20日~22日간 열린 人共의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였다. 여기에서 人共이 결의한 내용은 “人共은 軍政과 협력하려는 열망을 表現했지만 軍政이 人共을 理解하지 못하여 그 노력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軍政秩序에 대한 分명한 挑戰이었다. 美軍政當局은 45年 12月9日 人共을 不法化시키므로써 對應했다.

박헌영은 美軍政과의 정면충돌은 피할 戰術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것은 黨이 새롭고 광범위한 기초를 가진 統一戰線 即 중간파와 우익을 포함하는 통일전선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련의 政策을 따른 것일 뿐 아니라 國內政治 판도에 급격한 變化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月16日 李承晩이 귀국하여 이미 「獨立促成中央協議會」를 結成하고 있었고 11月23日에는 金九, 金奎植等 重慶臨政要人들이 歸國하여 國民들이 열렬하고도 廣範圍한 支持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美軍政當局도 當時 北韓에서의 소련의 소비에트化 政策에 對應하여 對公산당정책이 점차 冷視되기 시작하였다.<sup>40)</sup>

따라서 공산당은 이러한 内外的 要因에 對處하는 새로운 戰術的 試圖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족반역자와 反動分子를 제외한 모든 人民의 새 민족통일전선의 수립이었다.<sup>41)</sup>

註：40) 康仁德, 「共產主義의 統一戰線에 關한 研究」, (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77) p. 113.

41) Scalapino and Lee, p. 273.

### 第三節 左翼 3黨合黨과 南勞黨의 登場

#### 1. 民主主義 民族戰線 結成

45年 12月 17日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美·英·蘇 3國外相 會議는 同月 27日 韓國에 對한 5個年間の 유엔信託統治管理案을 決定하였다.

이에 對한 즉각적인 反應은 託治反對였다. 李承晩을 비롯한 右翼全體가 分개하였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信託統治와 싸울 것을 약속하였다. 共產黨의 분노도 이에 못지 않았다. 朴憲永은 46年 1月 1日에 가진 하지장군과의 會見에서 자신이 신탁통치를 反對함을 完全히 示唆했다.

그러나 1月 1日과 3日 사이의 어느 時點에서 公산당 지도부는 立場을 급격히 바꾸도록 說得되었다.

모스크바決定이 발표된 直後 中央委員會 政治局員 姜進이 소련 부영사 샤프신(A. I. Shabshin)과 會談을 가졌다. 朴憲永은 1月 2日 평양을 비밀 방문하고 온 뒤 중앙확대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앙위원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3相決定 절대지지를 강압적으로 決議시켰다.<sup>42)</sup> 미점령측 자료에 따르면 조선공산당 북조선북국 명의로 된 可能한 手段을 총동원해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라는 지시문이 산하의 모든 支部組織에 下達되었다.

소련군 사령부는 커다란 政治的 희생을 감수하도록 한국의 공산당에 強要했다. 韓國의 民族主義的 熱望에 反해야 했던 共產黨은 解放後 모든 努力을 動員해 축적했던 大衆的 지지기반을 잃게 될 危機에 處했으며 거의 모든 戰術的 利點들이 中間派와 右翼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심지어 黨員조차도 다루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不利한 狀況下에서 公산당은 右翼과의 合作을 모색하게 되었다. 46年 1月 6日 ~ 7日 人民黨(여운형), 국민당(안재홍), 朝鮮共產黨(박헌영), 韓國黨(金性洙)의 4黨代表들은 會晤를 갖고 民族統一을 目的한 다음 2가지 事項의 공동커뮤니케를 發表하였다. 첫째는, 信託統治문제는 새로 樹立되는 政府가 自主獨立에 입각하여 이를 解決하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暗殺과 테러行爲의 즉각

註: 42)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서울: 세계, 1984), p27.

적인 中止였다. 4 大政黨은 이러한 內容으로 일단 合意를 보기는 했으나 信託統治의 贊反이라는 심한 意見對立때문에 다시 分裂되었다.<sup>43)</sup>

여기에서 共產黨과 人民黨中心의 좌익계열은 우익진영과의 合作이 더 以上 成功할 전망이 없어짐에 따라 46年 2月 15日 좌익계만으로 構成되는 「韓鮮民主主義民族戰線」(民戰)을 發足시켜 모스크바決定的 實現을 追求하게 되었다. 呂運亨, 許憲, 朴憲永, 金元鳳의 4人을 共同議長으로 選出했으며 進歩的 民族主義 변호사로 정평있던 許憲이 公동의장직을 맡았다. 朴駟遠에 依하면 民戰結成에는 5가지 要因이 作用했다고 한다. 첫째, 反託과 贊託은 原則的 對立이므로 左右合作으로서의 統一戰線結成은 不可能한 것. 둘째, 託治문제로 脫黨하는 일반 黨員을 防止하므로써 贊託陣營의 기반을 公고히 하려는 것. 셋째, 2月 14日 右翼의 民主議員<sup>44)</sup>이 창설되자 그것을 無能力化하려는 것. 넷째, 진정한 민족통일체를 가장하여 自派勢力의 擴大를 도모한 것. 다섯째, 人民黨, 新民黨等 兄弟黨과 各 大衆團體內의 公산당의 지배력을 強化하려는 것<sup>45)</sup> 等이다.

右翼에서의 民主議員창설과 左翼에서의 民戰結成으로 南韓에 있어서의 左右派의 양극화는 明白해졌다.

한편 北韓에서 45年 12月 17日에 열린 韓鮮共產黨 北朝鮮分局 第3次 擴大執行委員會는 南·北韓 關係에서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었다. 이 會議에서 金日成은 責任秘書로 選出되었고 反託운동을 하던 曹晩植은 소련점령군에 依해 제거되었다. 또한 이것은 北韓의 公산당이 박헌영이 이끄는 서울의 朝鮮公산당을 한반도전체의 「公산주의중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意味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公산주의운동계에는 서울과 평양의 두 個別的 中央이 생겨났으며 평양의 중앙이 서울의 중앙을 서서히 압도해 가기 시작했다.<sup>46)</sup>

註：43) 김남식, 「南勞党的 研究」, Op.cit., p192.

44) 美·蘇 共委의 개최를 위해 소련 - 北韓의 공동전략에 효과적으로 對處할 수 있는 統一된 政治的 조직체의 必要性을 절감한 美軍政은 當時 이승만이 주도하고 있던 「非常國民會議」를 2月 14日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으로 탈바꿈 시킨다.

45) 박일원, op.cit., p. 29.

46) 金學俊, “歷史는 흐른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캠페인, 朝鮮日報 85年 3月 29日 字

## 2. 美蘇共同委員會와 朝鮮共產黨

모스크바協定에 對한 左右의 切열한 對決이 展開되는 가운데 美蘇兩軍代表 會議가 46年 1月 16日부터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兩側의 意見差異는 회의의 첫 머리부터 드러났다.<sup>47)</sup> 결국 이 예비회담은 2月5日 美蘇共同委員會를 개최하기로 合意하고 종결되었다. 2月5日의 회담에서는 重大한 決定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當時 朝鮮共產黨은 모스크바協定을 통한 진보적 민주정부(共產政權)의 수립이 기본방침이었으므로 民戰을 結成하는等 戰力強化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예비회담의 合意에 따라 46年 3月 20日<sup>48)</sup> 부터 제 1차 美蘇共同委員會가 열렸다. 소련대표 스티코프는 「앞으로 수립될 민주임시정부는 모스크바協定을 지지하는 土台위에서 창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소련의 目的은 「朝鮮이 소련에 對한 功擊基地로 되지 않는 우호적 민주국가가 되게 함에 있다」고 宣言했다. 이것은 反託勢力(右翼)을 임시정부의 수립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反해 美國代表는 「反託右翼陣營에게도 임시정부수립에의 發言權이 주어져야하며 左翼세력의 한국지배는 防止되어야 한다」고 主張하므로써 기본적인 立場의 對立 아래 共委는 進行되었다.<sup>49)</sup>

民戰은 共委에서 民主主義 임시정부 수립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따른 장기적 투쟁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目的으로 4月 20日 中央委員會를 개최하고 共產黨이 主張하는 임시정부의 政權形態를 구체화시키게 되었다.<sup>50)</sup>

---

註：47)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서울: 博英社, 1976), p 38.

미군대표(아놀드)는 38선과 남북한의 조속한 행정적 통합을 다룰 것을 제외한 데 대해 소련대표(스티코프)는 남북한간의 물물교환과 철도 및 도로재개등 제한된 문제만을 다룰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회의는 진행되어 결국 2월 5일 미소공위를 연다는 것과, 우면물교환, 라디오 주파수의 할당, 38선 왕래, 북한으로 부터의 송전의 계속과 같은 제한된 사항에 대한 台憲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사항들도 뒤에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

48) 소련대표의 신병으로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날보다 15일 늦게 개최되었다.

49) Ibid., p39.

50) 김남식, 「南勞黨 研究」, op.cit., pp231~233.

여기서 主張된 공산당의 ‘政府 및 行政기구 조직요강’은 暫政人民代表大會(약 600名)을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 하는 임시정부형태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共委에 參加할 한국의 政黨 및 사회단체대표의 자격문제는 끝내 회의를 앞초에 부딪치게 하였다. 또한 미국은 임시정부의 수립에 앞서 두 地域의 行政과 經濟의 統合을 제안, 現實的인 接近法을 취한 데 反해, 蘇聯은 임시정부 수립이 最優先의 과제이며 經濟와 行政의 統一은 그 뒤의 일이라는 政治 優先的인 接近法을 취하였다. 결국 회의는 半歩도 진전되지 못한 채 5月8日 無期休會로 들어가고 말았다.<sup>51)</sup>

美蘇共委를 통해서 정권장악을 획책했던 朝鮮共產黨은 共委의 결렬로 새로운 戰術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른바 공산당의 屬性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46年 7月 조선공산당은 正當防衛의 逆攻勢라는 구호아래 다음과 같은 ‘새전략’(New Strategy)을 提示했다. 첫째, 45年 8月15日以後 전개하였던 協助合作路線을 進步的으로 轉換한다. 둘째, 극동에서 中共黨과 日本共產黨들과의 연계하에 反美운동을 적극화 한다. 셋째, 北朝鮮과 같은 제도로 무조건 改革한다. 넷째, 美軍政 政策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다섯째, 政權을 軍政에서 人民委員會로 넘기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여섯째, 새로운 전술을 실행하는데 희생적 투쟁을 사양치 말아야 한다.<sup>52)</sup>

이에 따라 朝鮮共產黨은 7월 3일 조선화물자동차파업을 필두로 비합법 폭력투쟁으로 들어가는 한편 조선공산당과 남조선신민당 및 인민당 3黨의 合黨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 3. 3黨合黨과 南勞黨의 登場

46年 5月の 미소공위의 결렬과 精版社僞幣事件으로 美軍政과 朝鮮共產黨의 관계는急速히 惡化되어 갔다. 이러한 사건들이 소련의 기본적인 政策變化를 유도해

註: 5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op.cit., p 39.

52) 박일원, op.cit., pp 31~32.

냈다. 소련은 모든 左翼的 要素를 망라하는 形態로 共產黨을 再組織할 것을 決定했다.<sup>53)</sup>

박헌영이 급작스레 평양을 비밀방문하고 7월 22일 돌아온 뒤, 當時 呂運亨의 主導下에 推進되던 左右合作에 對한 反對의사를 分明하게 밝혔을 뿐 아니라 左派만의 統合을 積極 推進하기 시작했다. 마치 북한에서 北朝鮮共產黨과 朝鮮新民黨이 統合해 北朝鮮勞動黨을 만들어 냈듯, 南韓에서도 左翼 3黨이 統合해 南朝鮮勞動黨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4)</sup>

여운형은 박헌영이 주도하는 이 3黨統合運動에 反對했다. 그러나 그의 人民黨은 「朝鮮共產黨의 프락치」로 알려진 金午星, 李傑笑 등의 策略으로 合黨을 提議했다.

그러나 3黨合黨은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朝鮮共產黨內에서는 朴憲永中心으로 3黨合黨을 積極 支持하는 推進黨와 이에 反對하는 反幹部派(大會派)<sup>55)</sup>가 形成되었다. 人民黨에서도 심한 意見對立이 노출되었다. 黨內 47人은 無條件 合黨을 主張하였고 31人은 對等한 條件部 合黨을 들고 나왔다. 北韓에 본부를 두고 있는 新民黨(委員長: 白南雲)도 역시 反幹部派와 中央派 등으로 對立되었다. 결국 좌익정당은 3黨이 6個派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6個파중 공산당의 추진파와 人民黨의 47파, 신민당의 중앙파가 合同하여 南朝鮮勞動黨을, 共產黨內의 大會派와 人民黨의 31派, 그리고 신민당의 反幹部派가 社會勞動黨을 결성하게 되었다.<sup>56)</sup>

朴憲永中心의 合黨 支持者들은 9月4日 「人民, 共產, 新民 3黨合同 準備委員 連席會議」를 開催하고 南朝鮮勞動黨 綱領을 採擇하는 한편 黨名을 南朝鮮勞動黨(南勞黨)으로 할것을 決定하였다.

朝鮮共產黨이 南勞黨으로 轉身한 背景에는 蘇聯占領軍의 指示도 作用했겠지만 이보다 더 重要的 要因이 介在되어 있었다. 첫째는 46年 여름부터 공산당이 벌인 갖가지 파업과 暗殺 및 폭동으로 많은 조직군중이 떨어지게 되어 고립을 면치 못했다

註: 53) Scalapino and Lee, op.cit., p 290.

54) 金學俊, “歷史는 흐른다”, op.cit., 85年 4月 19日 字

55) 李廷允, 姜進, 徐重錫, 金綴洙, 金槿, 文甲松, 金台榮等

56) 金남식, 「南勞黨 研究」, op.cit., p 255.

때문이고 들쭉는 「半封建的 資本主義 以前段階」에 있던 當時로서는 공산당이라는 이름보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이었다.<sup>57)</sup>

이 무렵(9月6日) 美軍政은 박헌영과 李康國에 對한 체포령이 내렸다. 그러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그들은 9月5日 北韓으로 脱出했다. 박헌영의 월북에도 불구하고 좌파 3대정당의 統合運動은 계속되었다. 또한 조선공산당 주도하의 「9月 폭동」 및 「10月 폭동」도 그대로 준비되어 나갔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美軍을 「제국주의 군대」로 단정하고 美帝타도의 깃발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46年 9月에 접어들면서 總罷業을 지도해 갔으며 그것은 마침내 10月的 領南暴動으로 이어졌다. 「黨은 政治鬭爭을 통해 組織을 擴大하고 또 組織은 鬭爭을 통해 強化된다」는 박헌영路線이 이 事件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물론이다.

어떻든 南勞黨은 美軍政으로부터 創黨許可를 얻는 데 成功했다. 美軍政은 처음엔 時間을 끌려고 하였으나 끝내 거절할 法的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46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侍天教堂에서 結成된 南勞黨은 48年 8月 15日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合法的으로 存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앞날은 특히 10月 폭동의 失敗를 계기로 남한의 權力狀況에서 右翼의 힘이 커지고 左翼의 힘이 弱해졌기 때문에 무척 艱難한 것이었다.<sup>58)</sup>

---

註：57)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年 4月 19日 字

58) Ibid.

### 第三章 南勞黨의 赤化戰略과 戰術

#### 第一節 南勞黨의 組織體系

##### 1. 黨 組織體系

以上과 같은 不利한 狀況에도 불구하고 남노당의 조직은 우익진영에 비해 強力한 것이었다. 解放後 南勞黨이 수많은 軍중들의 支持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共產黨 特有의 敏活한 組織工作 덕분이었다.

남노당의 組織은 다음과 같은 原則에 입각한 것이었다. ① 맑스 - 레닌주의로 무장된 勞動階級의 선봉대 ② 強力한 組織規律 및 組織系統 ③ 積極的인 대중단체 조직 ④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 ⑤ 朴憲永의 콤·그룹派中心의 黨원구성 ⑥ 非黨團體 영도를 爲한 「프락치」 조직 ⑦ 合法·非合法 併用的 活動 ⑧ 農民층中心의 조직<sup>59)</sup>

南勞黨의 黨約에 依하면 黨의 最高決議機關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기 爲해 「黨大會」가 매년 열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大會를 연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能했다. 남노당을 탄생시켰던 11월 22일~23일 黨대회조차 거의 形式的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多數의 議員이 參席한다는 것은 不可能하였기 때문이다. 黨大會에서 選出되는 中央委員들도 이 時期에는 41名~45名 정도였다. 中央委員會는 3개월에 한번씩 소집되기로 定해져 있었으나 黨에 對한 制裁조치들 때문에 다시는 모이지 못하였다.<sup>60)</sup>

실질적으로 남노당의 最高決議機關은 中央政治委員會였다. 여기에서는 남노당의 모든 基本적 政治노선과 지령을 決定하였다. 政治委員은 許憲, 李承燁, 李舟河, 李基錫, 金三龍, 具在洙, 金龍岩 7人이나, 책임자는 이주하, 이승엽이며 허헌, 이기석은 「로봇트」에 불과하였다. 중심인물은 이주하와 이승엽이었으나 박헌영이야말로 當時 아무도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치에 도전할 수 없는 人物이었다. 이미 월북해 있던 박헌영은 남노당의 창당後 2개월이 지난 47年1月末 평양으로부터 해주로 내려와 「제일인쇄소」란 위장간판을 걸고 그곳에서 소련군사령부 정치부와 긴밀

註: 59) 박일원, op. cit., p. 53.

60) Scalapino and Lee, op. cit., p. 296.

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남노당을 지도해 나갔다.<sup>61)</sup>

中央政治委員會의 決定事項을 실행하는 기관은 「中央常務委員會」였다. 11名~13名으로 구성되는 同委員會는 13개의 부서<sup>62)</sup>를 두고 黨業務의 모든 分野를 擔當했다.

「中央監察委員會」는 11名の 위원으로 구성되며 黨決定事項의 시행과 反黨行爲의 적발이 主任務였다. 임무는 중요한 것이었으나 실지로는 명예직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全國的 組織下에 各道 및 서울市委員會, 郡 및 區委員會, 面委員會가 구성되었다.

남노당의 기본조직이며 최하급조직으로서의 細胞는 생산단위에 따라 3~5名으로 組織되었다. 세포의 임무는 黨路線을 대중과 연결시키고, 적극적이고 우수한分子를 당원에 흡수하는 것이며 당원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프락치」는 非黨組織內的 남노당원으로서 그 임무는 非黨組織에 黨의 主張을 관철시키며 정보를 탐지하는 일이었다.<sup>63)</sup>

이와같은 일사불란한 조직체제와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全黨員은 中央에 服從해야 한다”는 엄격한 黨規律이 있었기 때문에 남노당은 명맥을 維持할 수 있었다.<sup>64)</sup>

## 2. 前衛組織體系

46년부터 47년까지 남노당의 기본적 전위조직은 前述한 바 있는 民戰이었다. 남노당은 民戰을 통하여 主要한 合法活動을 하였다. 民戰은 남노당의 代弁者的 役割을 하면서 좌익의 단결을 推進하였다.

註：61)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年 4月 26日 字

62) 조직부(金三龍), 간부부(具在洙), 선전부(姜文錫), 청년부(高贊輔), 부녀부(金相赫), 노동부(李鉉相), 농민부(宋乙秀), 문화부(金台俊), 총무부(金光洙), 조사부(鄭泰植), 협조부(鄭魯湜), 구호부(金龍岩), 재정부(李天鎭), 이상의 13부서중 그 중요성에 비추어 3급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제1급은 조직부, 간부부, 선전부이며 제2급은 청년부, 부녀부, 노동부, 농민부이고 제3급은 문화부, 총무부, 조사부, 협조부, 구호부, 재정부이다. 박일원, op.cit., p. 59.

63) 박일원, op.cit., p. 62.

64) Ibid, p. 63.

民戰傘下 남노당의 外廓團體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겠다.

#### 가.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全評)

解放後 活氣를 띠게된 노동조합운동은 沿革的으로 볼때 1930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프로핀테른」(赤色左翼勞組) 제 5次大會에서 발표된 「9月테제」와 1931年의 「太勞 10月書信」<sup>65)</sup>의 줄거리를 따르는 것이었다. 1945年 11月 5, 6日 결성된 全評은 黨의 指示를 따르는 政治的 組合이었기 때문에 경제투쟁보다는 정치투쟁이 主任務였다. 全評의 조직체계는 産業別的 組織원칙하에 企業體 또는 職業別的 또는 地域的 組織(合同勞組)을 部分的으로 混合하였으며 地方的 노동운동과 연계를 맺기 위하여 各重要産業地帶에 地方評議會를 두고 지방평의회 소재지에 近接한 지대에는 그 밑에 産別連絡委員會를 두고 있었다.<sup>66)</sup> 全評은 9月 총파업사건, 3월 22일 24時間 총파업사건等 격렬한 스트라이크나 작업중단에 계속 뛰어들므로써 46年以後 일반노동자들로부터 급격히 支持를 잃어갔으며, 많은 경우에 남노당 세포원만이 全評의 下部조직에서 活動했다.

#### 나. 全國農民組合總聯盟(全農)

朝鮮共產黨은 全評을 조직한 다음 45年 12月 8日에는 全農을 結成했다. 이 때의 조직상황은 全農의 公表에 依하면 全國 13개 道에 道聯盟, 郡단위에 188개 支部(郡總數의 약 75%), 面단위에 1,745개 지부가 있으며 조합원수는 약 330만

註: 65) 汎太平洋勞動組合 秘書部에서 指令한 한국노동운동의 좌익적 지도노선. 이것에 依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장, 기업소, 광산, 사업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分散的이며 職業別的인 노동조합운동을 산업별적 원칙에 입각하여 目的의식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라는 것이다. 目的의식적 활동이란 各工場內的 노동자의 當面한經濟的 利益을 爲하여 부단한 투쟁을 전개시켜 그 투쟁과정을 통하여 더 높은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이끌기 爲한 目的의식적 조직 목표는 해방후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다.

中央情報部, op.cit., p. 195.

66) • 全評에 加入한 産別 單一勞動組合(16개): 조선금속노동조합, 조선섬유노동조합, 조선토건노동조합, 조선통신노동조합, 조선철도노동조합, 조선화학노동조합, 조선전기노동조합, 조선출판노동조합, 조선교통운수노동조합, 조선식료노동조합, 조선광산노동조합, 조선목재노동조합, 조선造船노동조합, 조선어업노동조합, 조선일반봉급자조합, 조선海員동맹

• 地方評議會: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비롯한 경성, 인천, 삼척, 부산, 마산, 목포, 군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지방평의회 11개소.

한창수編, op.cit., pp. 138~139.

명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sup>67)</sup> 전농의 조직체계는 전국농민연맹 → 道농민연맹 → 郡농민연맹 → 面농민위원회 → 里 및 部落농민위원회로 系列化되어 있었다. 전농의 下部組織力은 매우 미약하여 南勞黨의 농민부와 거의 同一人으로 구성되었으며 세포조직도 全無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 연맹은 全評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운동과의 同一性이 明白해짐에 따라 그 세력이 弱化되었다.

#### 다. 南朝鮮民主女性同盟 (女盟)

女盟은 45年 12月 22日~24日에 結成된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中的 하나였다. 조선여성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完全解放을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出發했던 女盟은 조직활동의 落後性으로 점차 그 조직기반을 잃어갔다. 따라서 南勞黨時期에 있어서는 비밀연락, 문서운반, 구호활동等 남노당의 보조기관으로서의 활동밖에 하지 않았다. 여맹의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 → 도총지부 → 면지부 → 里. 洞分會의 順으로 組織系統을 이루었다. 女盟의 公表에 依한 회원수는 70萬이었으나 이 숫자는 非공산주의자들의 세찬 논박을 초래했으며 과장된 숫자라고 추측되고 있다.

#### 라. 朝鮮民主愛國靑年同盟 (民愛靑)

朝鮮共產黨은 解放後 組織된 各種 좌익 청년단체들을 統一的으로 지도하기 위해 全國靑年團體總同盟을 45年 11月 29日에 結成하였다. 反日, 反民主主義의 구호하에 集結되었던 靑總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계기로 贊·反託으로 分裂되어 46年 4月 25日 朝鮮民主靑年同盟이 贊託中心의 靑年들로 재규합되었다.<sup>68)</sup> 反우익진영 조직이었던 民靑도 美軍政에 依해 해산령이 내리자 民愛靑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민애청은 민청과 性格과 조직상에 있어 同一하며 간부들 全員이 남노당원이었다. 민애청은 대중조직이라기 보다는 남노당원중 젊고 가장 투쟁적인 전위적 정예분자로서 조직된 남노당의 전위대였다. 이들은 不法化되어 地下工作에만 종사하였는데 특수유격대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격전에 參加하였다.

註: 67) 사쿠라이 히로시. “한국 농지 개혁의 재검토”, 「韓國現代史의 재조경」 (서울: 돌베개, 1982), p. 396.

68) 김남식編, 「南勞黨研究 資料集」, op.cit., pp. 620~621.

#### 마. 朝鮮文化團體總聯盟(文聯)

해방후 우리나라 인텔리(좌익계) 들은 조선공산당의 민족통일전선과 진보적민주주의정권(공산정권) 수립을 目的한 政治路線에 보조를 맞추어 과학, 기술, 언론, 교육, 체육, 문학예술等 各分野에서 독자적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46年2월 15일 공산당 주도의 民戰이 결성되자 이에 모두 가담했다. 그 뒤 이 단체들은 통일적인 활동을 目的으로 文聯을 조직하게 되었다. 여러 단체들을 하나로 組織에 結束시킨다는 것은 分散된 힘을 집결시킨다는 공산당 통일전선전술이었다.<sup>69)</sup>

그러나 文聯의 會員이 모두 공산주의자이거나 남노당원은 아니었다. 따라서 民戰 傘下 各단체中 가장 合法的단체라고 할 수 있다. 藝術, 科學, 言論, 체육部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人士를 多數 포함하고 있는데 文聯에는 25개단체<sup>70)</sup>가 加入되어 있었다.

이밖에 朝鮮協同組合全國聯合會(協組), 反日運動者救援會等의 외곽단체들은 공산당의 재정보조기관으로서 본래의 活動을 포기하고 北韓과의 밀무역으로 남노당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sup>71)</sup>

위에서 살펴본 民戰 산하 여러 단체들 大部分은 獨自的活動과 獨自性이 결여된 채 본부를 장악한 남노당의 지령과 결정에 依하여 운영되었다. 이 단체들의 사업의 상당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조직원 회원수가 과장된 것이라는 것과 함께) 남노당이 와해되고 地下化하지 않을 수 없었던 뒤의 일이었다.

註: 70) • 예술부문: 조선문학가동맹, 조선연극동맹, 조선영화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조형예술동맹, 조선음악동맹, 국악원조선무용협회, 조선가극동맹, 대중음악가협회.  
• 과학부문: 조선과학자동맹, 조선학술원, 조선사회과학연구소, 조선과학기술연맹, 조선산업노동조사소, 조선공업기술연맹, 조선산업의학연구회, 조선법학자동맹, 조선생물학회, 조선언어학회, 조선국어문학보급회, 조선과학여성회, 진단학회.  
• 언론부문: 조선신문기자회  
• 교육부문: 조선교육자협회  
• 체육부문: 조선체육회 김남식, 「南勞黨 資料集」, op.cit., p. 617.

71) Scalapino and Lee, p.298.  
박일원, op.cit., pp. 88 ~ 89.

## 第二節 南勞黨의 合法鬭爭

공산주의에 있어서 戰略이란 공산주의운동의 指導에 關한 科學이며 공산당의 혁명투쟁을 지도하는 指針<sup>72)</sup>이라고 한다. 따라서 革命戰略은 공산주의운동의 主·客觀的 要素를 정확히 판단하여 공산당의 最高 및 最低綱領에 따라 遂行하게 된다. 여기에서의 투쟁전술은 合法투쟁<sup>73)</sup> 非合法투쟁,<sup>74)</sup> 또는 半合法투쟁, 폭력투쟁, 平和的 투쟁, 地下투쟁·政治的테러가 行使된다.<sup>75)</sup> 이러한 여러가지 투쟁방법은 상황의 變動에 따라 合法투쟁을 주로 하면서 非合法투쟁을 配合할 수 있고 주로 非合法鬭爭을 하면서 合法투쟁을 배합하는等 신축성있게 적용된다.

공산당은 본질상 革命主義로 指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순수한 意味에서의 合法鬭爭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보겠다.<sup>76)</sup>

解放直後 朝鮮共產黨의 궁극적 目的은 8月테제에서 밝혔듯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段階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段階로 轉換하는 문제였다. 프롤레타리아로 急速히 넘어가기 爲한 전제조건들은 反帝·反封建鬭爭, 민주주의적 독재정권의 수립, 프롤레타리아 階級모니確立이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의 제 1 단계는 共產黨 指導下에 廣範圍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것이었다.<sup>77)</sup>

### 一. 統一戰線의 形成

해방된 後 공산주의자전 민족주의자이건간에 大部分의 政治指導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정치적 행위는 한국정부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수립이라는 궁극적 目標를 尙해 當時 조선공산당이

註：72) J·V·Stalin, 「The Foundation of Leninism」(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5), 982

73) 법률에서 인정되는 한계 내에서 전개되는 공개적 투쟁. 즉 각종 노동쟁의·대모等

74)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은밀한 方法으로 진행하는 비공개적 지하활동

75) 黃顯鳳, 「共產主義 革命戰略과 民族主義」, 「北韓과 共產戰略」(서울: 자유아카데미, 1976) p.119.

76) 김남식, 「南勞黨 研究」, op.cit., PP 278~279.

77) 김남식, 「남노당 연구 자료집」, op.cit., PP 20~21.

이 할 수 있었던 最善의 方法은 統一戰線戰術의 적용이었다.

이러한 最初의 시도가 바로 建準에 接近해서 人共을 수립하는 形態로 나타났다.<sup>78)</sup>

建準은 前述한 바, 呂運亨이 敗亡한 일본총독부로부터 政權引受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過渡的인 治安維持的 性格으로 發足한 것으로써 그 구성은 中道左派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建準이 當初의 과도정부적 性格에서 벗어나 韓國政府 수립에 이니셔티브를 잡으면서 그 영향력과 세력이 急速히 增加함과 同時에 建準內 공산주의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人共의 조직에 있어서 좌익의 영향력은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이 바랬던 것 보다 더 현저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表面上 人共은 공산주의정부가 分明 아니었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간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겉보기에 공평한 배분이 行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승만과 여운형이 각각 주석과 부주석직을 맡고 있고 허헌이 국무총리에 선출돼 있다. 그리고 저명한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이 각 부서에 선임되어 있다.<sup>79)</sup> 이것은 박헌영의 8月提제에서 주장한 바 있는 조선공산당의 정권장악을 위한 제 1 단계, 즉 우익반동세력을 제외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으로 인민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그들의 當面 투쟁노선을 行動으로 具體化시킨 것이라 하겠다.<sup>80)</sup>

남한공산주의자들이 當時 시도하였던 또 하나의 統一戰線戰術의 적용은 民戰結成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 3相會議 決定後 46年 2月 14日에 韓國民主代表者會議가 設立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이 統合된 사실이 좌익으로 하여금 反民族 陣營 統一戰線을 形成하게 만들었다. 46年 2月 15日에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 조선민족혁명당을 포함한 약 40개의 조직이 모여 民戰을 결성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 주요 좌익집단의<sup>81)</sup> 유기적 통일체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민족진영에 對抗하기 위한 政治的 戰線이었다.

또한 박헌영은 獨立同盟과의 統一戰線도 촉구하였는데, 독립동맹은 毛澤東휘하의

註: 78) 康仁德, 「공산주의의 統一戰線에 關한 研究」(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77), p.108.

79) Dae-Sook, op.cit., p 288 - 299.

민족주의자로는 金九, 金奎植, 金元鳳, 金炳魯, 曹晚植, 金性洙 等이고 공산주의자로는 金敏洙, 姜進, 李承燁, 李廷允, 洪南標, 武亭, 趙東祐等이 선임되어 있다.

80) 康仁德, op.cit., p112.

81) Dae - Sook Suh, op.cit., p 307.

세 주요 좌익집단: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극좌파, 백남운과 신민당의 좌파 및 여운형과 인민당의 온건좌파

中共軍과 함께 중국 화북일대에서 抗日鬪爭을 한 亡命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지도한 정치집단이였다. 金料奉, 崔昌益, 韓斌, 武亭等을 指導者로 하는 이 화북조선 독립동맹이 귀국한 것은 45年12月이였다. 독립동맹의 몇몇 인물들은 不在中에 이미 朝共의 幹部로 選出되어 있었지만 김두봉은 경남 자기 고향에 잠시 체재한 다음 즉시 자신의 그룹을 이끌고 北으로 가 평양에서 기반을 굳혔다. 무엇이 김두봉으로 하여금 北行하게 했는지는 分明하지 않다. 獨立同盟의 武裝戰鬥部隊 即, 武亭휘하의 朝鮮義勇軍이 當時 北韓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김두봉의 北行은 남한공산주의자들의 단결에 혼란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독립동맹 부주석 韓斌이 독립동맹남한지부 設立을 爲해 46年1月25日 서울에 파견되었고 독립동맹은 46年3月30日 북한에서 新民黨으로 發足되었기 때문이다. 신민당은 확장되었지만 한빈은 박헌영과 協力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신민당의 서울지부를 세워 白南雲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sup>82)</sup> 따라서 朝共은 독립동맹과 통일전선 제휴를 모색하는데 주로 개인적 레벨의 접촉과 교섭을 했으며 3黨 合黨때에는 一部 신민당원을 흡수하게 되었다.



## 2. 美軍政과의 統一戰線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은 처음부터 美軍을 적대적인 의세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들은 美軍을 朝鮮人民의 解放者로 인정하였으며 朝鮮의 獨立과 民主主義를 위해 노력하는 선의의 의세로 대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것이 소위 「國際民主主義戰線」理論이었다. 即, 美國과 소련을 中心으로 하는 聯合國이 국제파시스트 세력을 타도하고 被解放民族의 獨立과 민주주의를 確立시키기 위해 공동 전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被解放地域의 공산주의자들도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84)</sup> 조선공산당에 있어서 이 當時 문제가 되었던 것은 美軍政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인들, 즉, 영향력있는 지위를 차지하려고 책동하던 반동분자 및 민족반역자들이었다. 따라서 공산당의 첫 戰術은 美軍政과 보수·온건派 사이를 分明하게

註：82) Dae-Sook Suh, op.cit., pp.303~304.

83) 김남식, 「남로당연구」, op.cit., p.175.

84)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年4月26日字

갈라놓는 것이었다.<sup>85)</sup>

그런데 46年5月 제1차 미소공위가 깨어진뒤 조선공산당과 美軍政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 가장 중요한 理由는 소련의 정책전환이었다.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소련은 남북한 모두에서 좌파세력의 통일전선을 구축해 모스크바의정서가 規定한 남북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에 대처하려 하였다.<sup>86)</sup>

여기에 朝共에 큰 타격을 입히고 朝共과 美軍政當局 사이를 더욱 갈라놓은 사건은 「朝鮮精版社 偽造紙幣事件」이었다. 정판사는 조공 기관지 해방일보를 발간하던 출판사였다. 46年5月4日 경찰은 3장의 인쇄원판과 약 3백만원의 위조지폐를 압수했는데, 當局은 이것이 조선공산당의 活動資金에 用目的으로 인쇄된 것이라고 발표했다.<sup>87)</sup> 정판사의 朴洛鍾사장을 포함한 26名이 체포되고 人民日報, 중앙일보, 해방일보가 停刊되었다.

46年 후반기에 공산당은 급격히 좌경화하기 시작했다. 46年7월에 박헌영은 소련의 교무를 받아 미국의 정책과 미군정에 대한 공격에 초점을 맞춘 '새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투성이 9月총파업을 낳았으며 10月폭동으로 발전되었다.<sup>88)</sup>

10月폭동은 美軍政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우선 미점령군 최고책임자 하지는 소련이 폭동을 지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며 이 사건은 北으로부터의 對南무력침공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다른 미국관리들은 10月폭동이 남한 내부사정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完全한 革命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주한미군 정보기관의 「주간보고서」(46年9月29日~10月6日)에 따르면 여운형은 이 사건들이 남한의 朴憲永과 北韓의 武亭의 策劃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라고 分析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強化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sup>89)</sup> 이와같은 일련의 事件들로 46年初 大衆政黨 (mass party)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朝共은 46年後半에 가서는 이미 前衛黨 (vanguard party)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註： 85) Scalapino and Lee, p. 298.

86)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4.26 日字

87) Dae-Sook Suh, op.cit., pp. 309~310.

88) Scalapino and Lee, p. 301.

89)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4.26 日字

南勞黨은 創黨以後 수개월간은 가짜스로 黨의 合法性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다양한 공산계 전위조직들 또한 탄압받지 않고 正式會合을 가질 수 있었다. 남노당은 黨기관지를 통해 人民의 세력은 너무나 커서 軍政이나 반동분자들에 依해 굴복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當時 美軍政當局은 한국문제에 關한 제 2차 미소共委의 可能性을 파악하기 위해 正面으로 도전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民戰은 용인되었으며 김두봉, 박헌영, 허헌, 呂運亨이 47年1月29日에 最高指導部로 재선되었다.<sup>90)</sup>



---

註：90) Scalapino and Lee, op.cit.,p.303.

### 第3節 南勞黨의 非合法鬭爭

#### 1. 國際的 脈絡과 제2차미소공위

미소관계에 있어서의 냉랭한 분위기는 1947年 初期에서부터 시작되었다. 美國은 東歐의 소비에트化를 포함한 스탈린의 팽창정책이 노골화하자 對蘇協助政策을 버리고 케난(George Kennan)의 封鎖政策<sup>91)</sup>을 채택했다. 이것은 47年 3月 12日 「트루만 닥트린」(Truman Doctrine)의 宣言속에 구체화되었고 이어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의 유럽부흥계획이 뒤따랐다. 여기에 對應하기 爲해 스탈린은 코민포름(Cominform)을 창설하고 西歐의 군사적-정치적단결에 對抗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있는 소련공산당 정치국원 즈다노프(Andrei Zhdanov)의 演說, 이른바 즈다노프路線은 對立的인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영으로 世界를 分割하는 것이었으며 西歐에 對한 영원한 냉전을 意味하는 것이었다.<sup>92)</sup>

1947年 5月 21日에 再開된 제2차미소공위는 볼(W. Macmahon Ball)이 지적하는 것처럼 「美國은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기어코 봉쇄하려 하였고, 소련 역시 미국에게 우호적 정부수립을 철저히 저지」하려는 기본가정에서 出發한 것이었다. 공위는 처음부터 失敗할 것을 예견하고 시작한 것이었다.<sup>93)</sup>

미소공위가 최종적인 난관에 이른 47年 여름以後로 한국에 對한 미국정책의 재평가가 進行되었다. 트루만行政府는 한국이 군사전략적으로 重要한 지역이 아니라 는 것과 접령의 지속으로 폭발적인 정치적상황에 處하게 되었다는 군사적 견해에 근접하고 있었다. 남한의 사태가 急速히 惡化됨에 따라 可能한 限 원만하고 신속하게 철수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 군대철수에 對한 最上의 조치를 위해, 南北韓문제 의 해결책을 위하여 UN에 上程되었다. 유엔정치위원회는 47年 10月 28日 부터 한반도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11月 14日에는 새로 창설된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관리下에 選舉를 통한 한국정부수립을 요구하는 미국의 提案을 UN총회는 채택하였다.

註：91) 소련전계의 거점으로서 서유럽에 대한 경제지원을 본격화하는 한편, 군사동맹체제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

92)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op.cit., p 45.

93) Ibid. p 44~45.

## 2. 1947년의 투쟁들

1947년에 있어서 남한의 政治狀況은 대규모 충돌과 各種 소요로 특징지어졌다. 이때 남노당의 투쟁은 合法鬪爭과 非合法鬪爭을 配合한 形態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配合鬪爭의 形態는 점점 非合法 暴力鬪爭으로 變質되어 갔다.

### 가. 國大案反對事件

국대안사건은 46年8月22日 發表한 美軍政法令 102호<sup>94)</sup>가 도화선이었다. 46年9月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되자 학생들은 일제히 등록을 거부하고 맹휴로 들어갔다. 9月5日 서울대학 이공학부 교직원 38名도 총사직을 결의했다.

이때 남노당중앙위원회는 학원內 黨細胞들에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도록 指示하였다. 이것은 47年1月22日 북한주둔 소련군사령부 교육담당관 니코라이·구즈노프少佐로부터 남노당위원장 許憲앞으로 보내온 秘密指令<sup>95)</sup>에 의한 것이었다.

指令과 同時에 이 사건은 全國적으로 퍼져 나갔다. 57個校가 맹휴에 가담했고 약 4만명의 학생, 교직원이 이에 參加했다. 처음에는 경찰의 개입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不法的 行動들이, 예를 들면 함께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구타하고 反對者를 납치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경찰이 介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美軍政當局이 102호법령을 一部 修正<sup>96)</sup>하므로써 일단 수습되었다.

註：94)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에 관한 법령」으로서 경성대학, 경성경제전문을 비롯, 치과, 법학, 의학, 광산, 공업, 농림전문학교와 경성사범학교, 여자사범학교를 국립 서울대학교를 흡수하여 이 대학교에 농과, 상과, 치과, 사범, 공과, 예술, 법과, 문리과,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것과 대학교 이사회를 군정이 끝날때 까지 문교부장, 조선인 문교부장, 문교부차장, 조선인 문교부차장, 문교부 고등교육국장, 문교부 조선인 고등교육국장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

95) 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남조선 민족반역자 두목 김구, 이승만의 反動대러단, 反動軍政이 선동 조장하여 미소공위를 결렬시켰다. ② 조선을 해방하여준 붉은군대의 立場을 有利하게 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남노당의 계획밑에 광범한 혁명을 일으킬 임무를 가지고 있다. ③ 10月 인민항쟁은 미군정의 反動性을 전 세계에 인식시킨 것이며 붉은군대의 위대성을 자랑하는 효과있는 결과였다. 따라서 남조선의 학교 전부는 조직적인 맹렬한 투쟁을, 제1차로 동맹휴학을 合法的으로 시작해야 한다.

96) 理事 9名을 조선인 민간인으로, 미국인 대학총장 사퇴 조선인으로 임명, 각단과 대학 교수회 부활

### 나. 3. 1節 총돌사건

南勞黨의 3. 1節기념시민대회<sup>97)</sup>는 「미소공위의 재개를 촉구하고, 모스크바결정에 기초한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北朝鮮과 같은 民主改革을 위해서」거대한 시위로 轉換되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좌익과 우익의 청년들이 남대문에서 충돌하였다. 투석전이 시작되고 총소리가 있던 다음 해산되었다. 數名の 死傷者가 發生하였는데 경찰은 좌익의 발포로 발표했다. 수도청 출입기자단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곧 누가 쏜 총탄에 많은 사상자를 냈느냐가 문제였다. 이것은 明白히 밝혀지지 않았다.<sup>98)</sup>

### 다. 7. 27大會, 8. 15 폭동음모

미소공위가 5월에 재개되자 남노당은 승리를 확신했다. 동시에 黨은 당원모집 사업을 벌였다. 곧 각급 지방당과 기관세포에 黨員百萬突破를 目的으로 한 5倍加(뒤에는 10倍加) 운동전개를 지령했다. 이것은 당원의 質的인 低下를 가져왔을 따름이었다. 5배가운동의 目的은 미소공위에 대비하여 남노당이 가장 強大하며 인민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한편으로는 陳情書運動도 벌였다. ①政權形態는 人委로 ②민주애국투사 즉시 석방 ③공위협대상과 정부조직에서 反託집단제의 ④박헌영 체포령 취소등을 主內容으로 하는 진정서 6만 7천여통이 共委로 전달되었다.<sup>99)</sup>

이무렵 남노당의 政策路線은 47年6月17日에 채택된 민전 사무국의 보고에서 뚜렷하게 表明되었다. 이것은 남북한을 통틀어 전체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選出하고 이 인민위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南朝鮮民戰의 이 결의는 北朝鮮民戰의 決議와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보고는 南韓警察은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와 同時에 한민당에 對한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남노당의 이론가 李承燁은 「한민당이 모스크바 결정을 反對했던 代表的 우익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공위에 參加

註：96) 우익이 주최한 대회는 “기미선언전국대회”

98) 김남식, 「남노당 연구」, op. cit., p. 277.

99) Ibid., p. 291.

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論說을 「노력인민」을 통해 발표했다. 이 時點에서 좌우파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노당으로서는 共委에 依한 좌익 정권수립이 투쟁목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남노당은 47年 7月 27日 「미소공동위원회 재개경축및 임시정부수립 촉진대회」를 全國的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국민대중이 남노당의 路線과 主張을 支持하고 있다는 사실을 共委에 알리는 것이 目的이었다. 서울에서는 10萬名이 지방도시에서는 수만명이 (남노당의 선동과 구경나온 사람을 포함해서) 폭력적 시위를 감행하였다. 계속해서 남노당은 8.15기념대회를 명분으로 대규모적 군중동원을 계획했다. 여기에서 남노당의 전략은 경찰과 우익진영을 압도하고 一時에 공산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미군정당국은 強力한 제한조치를 취했다.<sup>100)</sup> 남한경찰당국은 의심이 가는 저명한 좌익인사들에 對한 대대적인 일제검거를 시작하여 8月 2日~14日 사이에 남노당을 포함하는 수천명의 좌익인사가 체포되었다. 따라서 8.15대회는 저지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朴顯遠을 포함한 많은 간부를 잃은 남노당은 세력이 더욱 弱化될 수 밖에 없었다.<sup>101)</sup>

이 무렵 남노당은 새로운 무장투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경찰內에 공산분자를 포함하여 남한에 人民解放軍을 창설하려는 공산당의 중요한 첫 시도가 47年末에 발각되었다. 그들의 활동거점은 경상남도였다. 한인식은 47年 3月 지방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신은 참모장에, 김갑수를 사단장으로 임명했으며, 연대가 비밀리에 부산, 동래, 울산, 진주, 남해等處에 창설되었다. 47年 8月경 830名의 군사요원과 736名의 정치요원들로 구성된 핵심그룹이 결성되었으며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이 3만 6천명의 동조자 및 잠재적 지지자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각 연대는 군사활동, 정보수집, 소형무기 생산, 정치활동을 擔當하는 각각의

註：100) 민정장관 안재홍의 행정명령 제 5호 "8.15기념식은 행정관서의 주관아래 국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당 및 사회단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101) 김남식, 「남노당 연구」, op. cit., p. 298.

特別部隊를 갖고 있었다. 그들의 主活動은 남한의 군대·경찰을 전복하려는 노력과 美軍에 關한 정보수집이었다. 이들은 유격전에 중점을 둔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부산의 외곽지역인 梵魚寺 경내를 포함한 대여섯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립경찰의 통신 및 훈련부서에 침투하려는 음모도 이 기간에 발각되었다.<sup>102)</sup>

우익단체에 對한 남노당의 침투는 계속 증가되었는데 몇몇 단체가 공개적인 轉向이 可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金九와 關聯된 우익단체는 가능한 빨리 통일된 한국정부수립을 위해 남노당과 밀착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가장 심각한 새로운 사실은 북한이 미군철수와 동시에 남한점령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 계획은 즉각적인 군대철수에 대한 소련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나 혹은 UN한국위원단에 의해 남한단독정부수립이 進展되었을 때 실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무렵 北韓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자기의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47年末과 48年初사이 북노당은 江東政治學院을 設立, 當時 월북한 남노당의 精粹分子들을 選拔收容하여 집단으로 훈련시켜 남과시켰다. 當時 南勞黨은 남한에 5개 유격지구<sup>103)</sup>를 설정하여 당원 약 3,500名 以上을 投入시켰으며 北韓은 東部陸上和 南海로 남노당戰略의 支援部隊로 약 1,300名을 남과하였다. 이들은 工作金을 支援하고 음성활동에서 노출된 당원의 월북편의 등을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남노당의 지하당활동과 유격활동을 성원하고 격려, 幷護하였다.<sup>104)</sup>

註：102) Scalapino and Lee, op. cit., pp.306-307.

103) 智異山, 湖南, 濟州道, 五臺山, 太白山

104) 中央情報部, op. cit., pp 299-300.

### 3. 5·10 選舉反對鬭爭

48年 1月 8日 8개국 代表로 구성된 유엔한국위원단은 서울에서 活動을 개시했고 北韓에서의 活動을 爲해 入北을 요청하자 소련군은 이를 거부했다. 이 當時 北韓은 공산당 단독집권의 段階에 접어들고 있었으며 正規軍인 조선인민군도 창건되어 단독정부수립은 오직 공식선포와 의식절차만 남게 되었다. 이런 時點에서 위원단의 入北 거절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었다.

南韓에서도 날카로운 對立이 일어났다. 46年 6月 정읍발언以後 南韓단독정부수립을 主張해온 이승만과 그의 獨立促成國民會議派는 南韓에서의 強力한 政府가 北韓의 군사력에 對한 안전판으로서 必要하다고 力說하고 北韓住民의 35%가 월남해 온 만큼 南韓의 政府가 全國的 政府로서 正統性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8·15以後부터 48年 봄사이에 약 2백만의 北韓住民이 월남했는데, 이들은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支持의 原泉이 되었다.

한편 金九와 金奎植은 단독선거안을 맹렬히 反對하고 나섰다. 金奎植은 “ 단독선거는 나라의 分裂을 永久化시킬 뿐이며, 北韓으로 하여금 영원히 소련의 路線에 加擔케할 것 ”이라고 主張하였다. 이들은 單選 대신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南北協商을 推進하였다.<sup>105)</sup>

공산주의자들은 위원단이 도착하자마자 強硬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主張은 ① 유엔한국위원단 반대 ② 단독선거반대 ③ 양군 동시철폐로 통일정부를 한국인에게 맡기라는 것 ④ 이승만·김성수等 親日反動派 타도等이었다.

박헌영은 “ 영웅적 10月人民抗爭 ”의 精神을 본받아 또 다른 人民抗爭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1948年 2月 7日<sup>106)</sup> 全國的 規模의 폭동과 파업이 시작되었다. 民戰은 “ 朝鮮人民은 노동계급의 총파업을 先頭로 위대한 구국투쟁에 踴기하였다 ”라고 宣言했다. 수송기관들이 태업 (Sabotage)에 들어갔고 경찰서가 공격을 받았다. 전선절단사건과 열차파손 및 도로, 교량의 파괴가 行해졌다. 5月選舉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2月과 3月내내 폭력행위가 계속되었다.

註：105) 김학준, “ 歷史는 흐른다 ”, op.cit., 85. 5.10日字

106) “ 2.7 救國鬭爭 ”

남로당은 北勞黨과 함께 “南北統一과 民族自決”이라는 슬로건으로 南北連席會議을 개최하여 모든 단선반대세력을 집결<sup>107)</sup> 시키고 5.10 선거를 파괴시키기 爲한 직접적 투쟁대책을 세웠다. 단선반대를 위한 남북협상이라는 공개적이며 合法的인 政治鬭爭과 함께 非合法的이며 격렬한 폭력투쟁을 계획한 것이다.

「宣傳先行隊」가 黨과는 별도로 組織되었다.<sup>108)</sup> 이것은 黨의 正常組織體와는 엄연히 區別되는 것이었다. 그래야 책임회피와 기밀누설의 염려가 없어진다는 계산이었다. 先行隊와는 별도로 各地區에 보조기관으로서 「白骨隊」, 「遊擊隊」, 「人民靑年軍」이 조직되었다. 각지방에서는 소위 「野山隊」가 조직되었다.

평양방송, 남노당에 依해 조종되는 신문들, 삐라, 벽보, 선전선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북한은 남한에 送電해 오던 전력을 中斷시켰다. 정부와 경찰관서 습격과 放火, 정부관리와 경찰관 우익요인 살해, 통신망과 철도의 파괴등 다양한 폭력투쟁이 잘 조직되고 統制된 상태로 이루어졌다. 철저한 폭력투쟁이 전개되었다.<sup>109)</sup>

남노당으로서 이 폭력투쟁의 成敗가 그들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정부가 일단 수립되면 완전히 不法化되어 地下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남노당의 무장폭력전술의 구체적 첫번째 움직임은 「4.3제주도폭동사건」으로 나타났다.<sup>110)</sup>

---

註： 107) 김남식, 「남노당 연구 자료집」, op.cit., p 443.

(허헌, “남조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에 대한 반대투쟁 대책”, 1948.4.)

108) 1948년 4월 1일부터 조직착수

109) 김점곤, op.cit., p 113.

110) 김학준, “歷史는 흐른다”, op.cit., 85.6.7일자

## 第四章 4·3 濟州道暴動事件

5·10 선거반대투쟁이 進行되고 있던 時期에 美軍政에 對한 정말 중요한 軍事的 挑戰은 南朝鮮國防警備隊(대한민국 국군 ROKA의 前身)내에 침투해 있던 남노당 프락치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反亂이었다. 이 反亂들 중 가장 최초로, 가장 重要했던 反亂은 의심의 여지없이 48年4月3일에 돌발한 제주도폭동이었다.

남노당제주도지부가 계획하고 주도했고 국방경비대內的 좌익세력이 습勢한 4.3 폭동은 濟州道에 駐屯하고 있던 軍隊中 一部가 加擔했고 麗順叛亂으로 이어져 當時 獨立國家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던 李承晩行政府를 危機에 몰아 넣었다.

4·3 폭동은 남노당의 鬭爭路線을 全面 非合法的 武力鬭爭으로 突入시키는 첫段階였으며 6·25 動亂을 豫告하는 內部的 기원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南勞黨 中央과는 關係없는 南勞黨濟州道支部의 自發的 選擇에 의해 推進된 것이었다.<sup>112)</sup> 이들은 南勞黨의 共產主義 운동에서 核心이 되기 위한 주변인(marginal man)으로서의 کم플렉스를 성급히 脫皮하려고 했기 때문에 5·10 선거반대투쟁을 더욱더 과격화시켰던 것이었다.

여기에 제주도 자체의 反亂의 傳統과 분리주의적 전통, 오랫동안 참아온 不平等 特有的 혈연구조와 지방주의가 짙게 깔려서 남노당의 투쟁노선과 不幸한 결합을 하게 된 것이다.

### 第一節 歷史的 背景

濟州島는 미약한 政府의 統制와 주기적인 反亂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13세기 몽고침입以前의 제주도는 中央政府의 直接的 統制를 받지 않는 獨立的 탐라왕국으로서의 朝貢國關係를 유지하고 있었다.

註：111) Scalapino and Lee, op.cit., p. 306.

112)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2., 1980., p. 166.

몽고가 침입하자 제주도는 元에 對抗하는 反抗的 抵抗의 최후보루로서의 役割을 하였으며 1273年부터 1368년까지 거의 1세기동안 몽고支配下에 있으면서 元에 對한 散發的 저항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피압박민족으로서의 반항의식과 불만의식이 빈번한 反亂으로 表出된 것이었다.<sup>113)</sup>

李朝時代의 大部分은 고립지역으로써 政治的 無關心속에서 귀양지로 利用되었을 뿐이었다. 當時 濟州島의 고립과 同한시는 이조시대에 있어 6차례에 걸친 反亂<sup>114)</sup>의 主要因이 되었다. 이 反亂들은 傳統的인 농민반란의 形態로 지방관리들의 착취와 重課稅에 對한 島民들의 自發的 분노의 폭발이 大部分이었다. 이 反亂들에서 무장저항은 그 자체로서 불만을 제거하는데 効果적인 方法임을 보여주었으며 이 効果적인 方法이 비록 급진적으로 變하기는 하였지만 1948년에 다시 主張되었다.

日帝時代 제주도는 사회적·경제적인 급속한 變化를 겪었다. 傳統的 漁業은 近代化되었으나 全的으로 일본의 利害에 依한 것이었다. 大部分의 농민들은 토지를 몰수당했다. 1920年代初 오오사까까지의 직통연락선이 취항되고 여권발급제도가 폐지되자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악조건에서 벗어나기 爲해 일본과 만주로 이민을 갔다. 따라서 1940年경 일본거주 제주도민은 15萬名으로 증가되었다.

사회주의사상은 1920年代 日本을 통해서 들어왔다. 最初의 맑시즘연구모임이 1922년에 결성되었고 1925년에는 朝鮮共產黨濟州島支部가 조직되었다. 경찰은, 본토와 마찬가지로, 4차례에 걸친 체포를 통해서 좌익세력을 분쇄시켰다.

이조시대에 왜적의 침입으로 형성된 島民의 자주적 방위의식과 폐쇄적 반항가질<sup>115)</sup>은 일제시대를 지나는 동안 빈번한 파업과 시위로 구체화되었고 이것은 미군정기에도 계속되었다.

註：113) 高性俊, “東北亞 정세 변동과 통일안보정책上的 濟州도의 좌표” (서울:국토 통일원, 1978), p. 59.

114) 1813年 梁濟海 一党的 反亂  
1863年 任戌年 農民亂  
1891年 김지의 亂  
1896年 갑오개혁 항의 반란 1898年 房星七의 亂  
1901年 이재수의 亂. 禹樂基, 「濟州道」 (서울: 한국지리연구소, 간행부, 1980), pp. 775~830 참조.

115) 高性俊, op.cit., p. 60.

식민지시대에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은 급속히 增加되었다. 이들은 제주도를 대륙침략의 요충으로 利用했으며 太平洋戰爭時에는 對美決戰의 최후의 보루로 이곳을 요새화하였다.<sup>116)</sup> 戰爭의 절정기에는 약 10 만의 군인이 주둔했다. 대량의 무기와 폭약이 산속의 동굴에 비축되었는데, 그 중 많은 양이 일본 철수후에도 남아있었다. 이러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노력은 모두 도민들이 부담했다. 때문에 경제사정이 매우 惡化되어 있었다.

## 第二節 남노당제주도지부의 合法鬭爭

### 1. 美軍政과 제주도

解放後 미군이 최초로 제주도에 상륙한 것은 45年9月28日이었다. 소수의 장교단이 일본군의 항복조인을 받기 위해서 온 제 1 단계<sup>117)</sup> 進出이었다. 일본주둔군의 철수는 10月22日에 시작되었고 6만 8천여명의 병력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와 同時에 일본군에 종군했거나 중국에서 八路軍에 있었던 좌익계 과격분자들이 돌아와 20萬名線에 지나지 않던 제주도 人口는 26萬名이 되었다.<sup>118)</sup>

美軍이 제 2 단계 진출, 即 전술적 점령을 한 것은 제 6사단 제 20보병연대가 제주도에 도착한 11月10日이었다.<sup>119)</sup> 이들 전술부대는 11월 중순경 군정요원들로 교대되었다.(제 3 단계) 이 時期에 인민위원회는 스스로가 “섬에 있어서의 유일한 政黨, 유일한 政府”로 자처하고 있었다.<sup>120)</sup> 이때는 建準의 하부조직인 인민위원회

註 : 116) 김남식, op.cit., p. 363.

夫萬根, 「光復濟州 30年」(서울:文潮社, 1975), p. 19.

117) Bruce Cummings, *The Origin of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erate Regimes, 1945~47* Prinston: prinston University press, 1981, pp.289~290.

미군의 점령은 3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제 1 단계 : 미군장교정찰팀이 미군 진주를 알리고 상황조사하기 위한 것.

제 2 단계 : 전술부대 진출시기.

제 3 단계 : 民政팀(군정중대)가 진출한 시기.

118) 1944年 : 219,548名, 1946年 : 276,143名.

119) Ibid.

120) 當時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屬해 있었으며 島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인민위원회는 날로 비대해져 行政權을 침식하고 있었다.

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sup>121)</sup>

제주도는 9월부터 좌익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9月7日 建準의 下部組織으로 「전국준비제주도위원회」가 최초의 정치단체로 조직된데 이어 9월 중순에는 「공산청년동맹제주도위원회」, 9月22日에는 「濟州島人民委員會」 12月에는 「朝鮮共產黨濟州島委員會」 등이 결성되었다. 한편 그 세력이 지극히 미미한 것이었지만 우익단체들도 조직되었다. 45年9月 發足된 「漢拏團」과 12月16日에 결성된 「獨立促成國民會濟州島本部」가 그것이었다.<sup>122)</sup>

이 여러개의 그룹들은 세력확보를 위해서 분투하였으므로 島内の 政治的 狀況은 매우 不安定하였다.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된 것은 11월 초순<sup>123)</sup>으로 좌익 그룹과 우익그룹사이의 무장충돌에서 백명 이상이 부상을 입음으로 해서였다. 그후 부터는 제주도인민위원회가 完全히 장악하게 되었다.

46年2月 조선공산당제주도위원회는 産別<sup>124)</sup>로 외곽단체를 조직한 다음 2月 23日 「民戰濟州島委員會」를 결성했다. 미소공위가 결렬된 5月에는 民戰의 사주로 제주버스회사 종업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濟州島內 중학생 1천여명은 미군정 청앞에서 反美口號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어서 제주농업학교와 五賢中學校 학생들은 反共의이고 親美的 교육을 反對하면서 盟休에 突入하였다.<sup>125)</sup>

이와같은 반미 규탄에도 인민위원회는 軍政이 제주도에 주둔한 한햇동안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군정은 島를 管轄하는데 위원회를 利用하였고 지원도 해주었다. 美軍政當局은 46年8月1日 濟州島를 道로 승격시켰다.

軍政과 인민위원회의 관계가 까다로워진 것은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박헌영이 새 전략을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박헌영의 새전략은 9월총파업과 10月폭동으로 이어졌고 미군이 소요를 진압하기 전에 수백명의 경찰과 시위자들이 죽었다. 좌익을 向한 주둔군의 태도는 갑자기 경직되었다. 미군정의 최대의 관심사는 統制와 内部의 安

註：121) Ibid., p. 297.

커밍스는 지방의 건준조직이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 人共의 ‘인민위원회’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122) 夫萬根, op. cit., pp. 43 ~ 44.

123) 11月 12일 밤.

124) 청년동맹, 부녀동맹, 교육자동맹, 소비조합노동자조합, 제주문화협회 등

125) 夫萬根, op. cit., p. 43.

술에 있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인민위원회와의 협조로서 화해될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조직이 強化되기 시작했다.

미군정당국은 46年 11月 국방경비대 제 9연대를 창설했고 제주근해에 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또 본토로부터 1백여명의 경찰관을 차출시켜 좌익을 견제하기 시작했다.<sup>126)</sup>

비록 地下로 들어가야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위원회<sup>127)</sup>는 조직적행동에 속박받기 시작했다. 힘의 行使權을 빼앗기면서 위원회는 도민들의 점증하는 불만을 動員하기 시작했다. 當時 조악한 경제사정은 도민의 분노를 加速化시켰다. 기존무역형태의 중단, 군기지폐쇄, 많은 도민의 귀환으로 송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약한 제주도의 경제는 더욱 조여지게되었다. 더구나 북쪽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들마저 공급되지 않았다.<sup>128)</sup> 道승격은 예기치 않았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냈다. 이미 침체된 경제는 불어난 공무원들을 뒷받침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島民들은 그들의 생산품을 본토로 내다 파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목포부두의 경찰은 새로운 道에서 오는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여행자들에게 무거운 통행료를 부담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47年 3·1절행사에 즈음하여 道內 좌익봉기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入收하였다.<sup>129)</sup>

## 2. 3·1 사건

47年 3·1절기념행사에서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폭동이 터졌다.

남노당은 미군정당국의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삐라와 전단을 살포

---

註: 127) 46年 11月 23日 3 党合黨으로 남노당이 등장하자 제주도 그 명칭이 바뀌어 「남노당제주도위원회」로 되었다.

128) 5·10 선거반대를 돕기 위해 북한이 취한 조치. 예를 들면 밤낚시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낚시용 램프에 사용되는 탄소의 절대적 부족때문이었다. 주정공장의 산출량과 발전소의 발전량은 석탄의 부족으로 격감되었다. 북쪽의 화학공장으로 부터 공급되어 오던 비료를 입수할 수 없게 되면서 농업생산량 역시 줄어들었다.

129) 김점곤, op.cit., p. 150.

하면서 3·1 폭동의 준비를 진행시켰다.<sup>130)</sup> 오현중학교에 모여 反美口號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2,000여명의 군중이, 모임을 저지시키려던 미군의 시도가 오히려 참가자들을 자극하게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북국민학교를 향해 시위를 벌였다. 수많은 군중이 습격하기 시작해서 북국민학교 교정에는 3만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3·1절 28주년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다. 개회사는 남노당제주도위원회 책임자 안요점이 했다. 대회를 마친 군중은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는 점점 난폭해져 폭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赤旗歌도 불렀다. 이때 미국군대와 경찰이 發砲하였다. 군중은 해산되었지만 數名の 死傷者가 발생하였다. 즉시 남노당 도당부는 ‘3·1사건공동투쟁위원회’, ‘3·1사건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제주도과업투쟁위원회’를 재빨리 조직했다.

3月9日에는 도청을 비롯한 일부관공서에 침투하고 있던 프락치들로 하여금 총과업을 일으키게하였다. 이들은 발포한 경찰을 처형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며,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고, 체포당한 사람을 즉시 석방시킬 것이며, 미소공위를 재개하라고 요구하였다.<sup>131)</sup> 이러한 요구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에 軍政은 道の 통제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약300名の 경찰을 급파하였다. 이와 더불어 極右派 행동대인 서북청년단 700名과 民族青年團 100名이 경찰과 合勢하였다.<sup>132)</sup> 이들 우익청년단은 北韓에서 온 투철한 반공월남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남노당과 대치하였다. 警察의 月給은 지나칠 정도로 적어서 여러가지 形態의 不正利得으로 보충해야만 했다. 따라서 좌익과의 物理的 對決은 西靑과 같은 反共青年團體와 경찰이 擔當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충돌等は 남노당의 相對的인 투쟁지위를 有利하게 造成하는 原因이 되었으며 사태를 복잡하게 했던 문제점이었다.

註：130) Ibid, p. 150.

131) 김남식, 「남노당 연구」, op.cit. p. 366.

132) 김점곤, op.cit., p. 152.

### 3. 南勞黨의 조직기반확충

3.1 사건에서 有利한 政治的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成功한 남노당은 본토에서 파견된 黨員의 協助下에 1947年 가을부터 맹렬한 당원도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48年初에 남노당원은 동조자와 지지자를 포함해서 제주도 人口의 약 20%에 달했다고 얘기되고 있다. 黨의 細胞組織은 모든 面·里단위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量的으로 擴大되었을 뿐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매우複雜하게 되었다. 反亂當時 黨의 조직적구조와 요직에 있었던 者들은 다음과 같다.

① 黨責任：安요점, 趙夢九, 金塗煥, 姜圭燦, 金龍寬 ② 軍事部：金達三, 吳大進, 李德九 ③ 總務部：李佐九 ④ 組織部：李鍾佑, 高칠중, 金양근 ⑤ 農民部：金완배 ⑥ 經理部：玄복유 ⑦ 宣傳部：金은환 ⑧ 青年部：姜大錫 ⑨ 婦女部：高진희<sup>133)</sup> 이것은 46年 9月 경찰에 압수된 남노당조직의 黨員<sup>134)</sup>과 一致하지 않은 點으로 미루어 47年 어느 時期에 주요지도층의 變化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金達三<sup>135)</sup>에 의해 지휘받는 인민해방군은 李德九를 사령관으로 하여 500名の 주력부대와 약 1,000여명의 동조자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日軍이 묻어두었던 무기를 파내서 무장하고 八路軍출신들에 의해 중국에서 使用하던 유격전을 배웠다.<sup>136)</sup> 47年 2月경 부터는 各區, 面·里단위에 「自衛隊」를 편성하고 한라산에 주요거점을 형성했다.<sup>137)</sup>

黨支部편성과 자위대조직과 더불어 인민투쟁위가 南勞黨中央의 指令으로 조직되었다. 남노당은 정부관리들을 說得하는데도 成功的이었다. 도지사는 인민투쟁위원장직을 맡을 것을 설득받았고 濟州邑長은 副委員長이었으며 各面長도 面鬪爭위원장이었다고 전해졌다.<sup>138)</sup>

註：133) John Merrill, op. cit., p. 157.

134) 강용삼, 이경수 편저, op. cit., p. 548. 당책임에서 安世勳과 李道伯이 빠져있음.

135) 김달삼은 학병출신으로 日本福知山 육군예비사관학교를 나온 일본군 소위였다. 當時는 27세. 48年 7月 월북하여 「해주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후 太白山에 잠입, 유격전을 지휘하다 1949年 국군의 공비토벌에 의해 사살되었음. 강용삼, 이경수 편저, op. cit., p. 664

136) Ibid., p. 597.

137) 김점곤, op. cit., pp. 153~154.

138) Ibid, p. 155

국방경비대에도 이미 남노당 프락치 文相吉중위가 침투해 있었다. 47年末부터는 남노당이 계획적으로 좌익청년들을 入隊시키므로써 경비대와 경찰과의 갈등을 조장했었다.

제주도 特有的의 혈연구조와 지방주의는 남노당세력확장에 도움을 준 중요한 요인이었다. 지역사회의 지도적 人物이나 친척중의 한 人物이 좌경화되면 혈연과 지연 그리고 本土人에 對한 反抗的 단합심이 접착작용을 촉구하므로써 남노당 조직을 이데올로기以上の 것으로 단시일에 팽창시켜 갔다.<sup>139)</sup>

어려운 생활조건과 낮은문화수준, 심한 사투리에 의해 友敵관계가 分明해지는 것 등 육지에서 온 관리들은 제주도를 가능한 한 빨리 그만두어야 할 못마땅한 보직으로 보았다. 대부분 이들은 업무에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항상 한직급 승진의 조건으로 本道에 왔다. 따라서 그들의 행정방침은 자연적으로 무책임하고 不安定한 경향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노당은 高度로 발달된 黨組織과 軍중조직을 통해 제주도의 정보망을 장악했다고 보여진다. 국영방송은 가까스로 제주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라디오청취는 전력부족으로 제한되었고 제주시내 단 하나의 신문만 있을 뿐이었다. 情報의 流入과 流出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의 행정력은 취약했다.

以上の 상황은 제주도민들 사이에 남노당에 대한 正當性을 부여하고 있었다. 일단 反亂이 났을때 제주도 주민의 일부는 게릴라편으로 기울어졌다.

---

註 : 139) 김접곤, op. cit., p. 145.

### 第三節 南勞黨濟州道支部의 非合法鬭爭 · 4·3 事件

#### 1. 2·7 事件

48年이 되자 5.10 選舉를 反對하는 남노당제주도지부의 무장폭력투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西靑과 警察에 對한 테러와 보복테러의 畧환이 連續되었다. 본토에서 2.7 구국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날 안덕면 서광리에서 반도들은 한 경찰관을 생매장시켰다.<sup>140)</sup> 그들은 엄청난 시위를 했으며 도청까지 습격했다. 밤에는 미군과 경찰에 투쟁한다는 표시로 횃불시위를 벌였다. 이어 일본계 소총과 수류탄, 죽창 등으로 무장한 인민행방군은 안덕지서를 습격해 지서장을 살해했다. 2月15에는 한림읍에서 경찰과 우익청년들과 교전하였다.<sup>141)</sup> 산발적인 폭동과 여러번의 동맹 파업사태가 4月3日 결정적인 순간이 올때까지 계속되었다.

#### 2. 4·3 事件

以上과 같은 테러환경속에서 5.10 單選 分쇄의 가장 有利하고도 正當한 방법은 무장투쟁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순전히 남노당제주도지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이것은 當時 남한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소위 구국투쟁을 새로운 방향으로 轉換시키게 하였던 결정적 단계를 만들었다.<sup>142)</sup>

도민들이 오랫동안 참아온 不平等, 분리주의적 전통, 우익청년단체와 경찰에 대한 증오감, 증가하는 억압,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격렬해진 정치적 분위기 등은 그들을 행동으로 유도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남노당제주도위원회 軍事部責 金達三, 趙魯九와 국방경비대 文相吉중위가 무기를 들기로 決定한 것은 48年 3月末頃이었다고 한다.<sup>143)</sup>

註：140) 夫萬根, op.cit., p47. 이것은 세칭 2.7사건이라고 한다.

141) 김남식, op.cit., p567.

142) 김남식, 「남노당 연구 자료집」, op.cit., p450.

(김광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력기한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근로자」제2호, 1949)

143) 김집곤, op.cit., p155.

공격은 4月3日 오전 2시에 시작되었다. 共產暴徒<sup>144)</sup>들은 도내 15개 경찰지서 중 14개 지서를 무장으로 습격하였다. 各面單位로 편성된 남노당의 외곽조직을 총동원한 3,000여명이 이들과 습勢하였다.<sup>145)</sup>

첫공격에서 경찰관 4명과 민간인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2명이 납치되었다.<sup>146)</sup>

이들은 단선반대투쟁으로서 4.3사건을 일으킨 것이며 대중을 동원하여 反美敎國統一戰線을 形成하였다고 선언하였다.<sup>147)</sup> 반도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공격에 대한 理由를 說明한 것으로 되어있다. “친애하는 시민, 부모형제들이여. 4月3日 오늘 당신들의 아들, 딸, 동생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단선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완전한 민족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은 강요하는 美帝食人種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신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쫓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들 도와 일어나야 합니다.” 반도들과 한편이 될것을 권유하는 비슷한 구호가 경찰과 우익청년들에게도 호소되었다.<sup>148)</sup>

그들은 첫승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정부당국의 강력한 반격을 예상하여 안전한 한라산으로 脫走했다. 當局은 1,700명의 경찰을 增派시켰으며, 국방경비대 제9연대에 1개대대를 보강하였다. 4月10日 부산주둔 제6연대에서 증파된 제2대대장 吳一均은 약 1개월간 공산계릴라들을 진압하지 않음으로서 폭동의 규모를 확장하는데 결정적 役割을 擔當하고 있었다.

한편 남노당제주도위원회는 더욱 강력한 무장조직으로 정예화하고 투쟁을 강화하여 5.10 선거를 기필코 파탄시킬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를 해체하고 핵심 분자와 전투경험자 30名씩을 선발하여 「人民遊擊隊」(人民軍)을 조직했다. 이것은 3개연대와 2개 독립대로 편성되었다. ① 1연대 (3.1支隊) : 제주·구좌·조천관내며 책임자는 李德九 ② 2연대 (2.7支隊) : 김봉천을 책임자로 애월·한림·대정·안덕·중문면 ③ 3연대 (4.3支隊) : 趙夢九를 책임자로 서귀·남원·성산면관내를 맡도록 했다. 이밖에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 우익인사 및 토벌

註 : 144) 남노당제주도위원회가 전력을 다해 무장부대로 조직한 「人民自衛隊」

145) 김점곤, op.cit. p156.

146) 강용삼·이경수편저, op.cit., p598.

147) 김점곤, op.cit., p157.

148) Ibid.

대의 동정을 파악하는 特警隊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자체감시라는 또 다른 임무가 주어졌다. 각 部落마다에는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0名씩으로 된 무장대를 배치하였다.<sup>149)</sup>

산발적인 싸움이 4월동안 계속되었다. 4월하순부터 정부군은 토벌작전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경비대에 의해 차단되었고 경찰은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공산폭도들이 대부분 한라산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주력부대를 충분히 공격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찰과 경비대사이에 뚜렷한 區分을 지었으며 경비대와는 될수록 접전을 피하고 경찰과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잔인한 방법으로 대처했다. 경비대內의 많은 좌익분자들은 도민들의 불만은 정당하며 폭동은 경찰과 주민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방위대間의 이러한 긴장은 文相吉중위의 지휘로 국방경비대 소속 약 100명의 군인이 脱營하여 유격대와의 合流를 시도한 4月29日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들은 즉시 출동한 추격대에 의해 20名이 사살되고 수십명이 체포되었으며 나머지는 한라산으로 들어갔다.

폭동은 점점 擴大되어갔다. 5月1日에는 吾羅里에서 공산폭도 100名과 경찰이 交戰하였다. 5月3日에는 미군정당국에 귀순해 오는 공산폭도들이 다른 공산폭도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一部는 죽고 나머지는 다시 산으로 도망갔다. 全南과 경남에서는 남노당소속 공산분자들이 폭동을 돕기 위해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sup>150)</sup>

제주도의 상황은 이미 統制를 벗어나 있었고 軍警은 폭동을 진압할 能力을 상실하고 있었다.

5月10日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5月6日에는 제주중학교에서 高位戰略會議가 열렸다. 던(F. Dean) 美軍政長官, 安在鴻民政長官, 宋虎聲경비대사령관, 趙炳玉경무부장, 濟州軍政長官 맨스필드대령, 柳海辰제주도지사, 김익열 9연 개장, 崔天제주도경국장이 參席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조병옥과 김익열이 공산폭도討伐指揮權을 놓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기

---

註：149) 강용삼·이경수편저, op.cit., p 599.

150) Ibid., p 635.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sup>151)</sup>

던장군은 폭동을 다루는데 있어 더욱 活動的으로 聯隊를 強化시킬 수 있는 연대장으로 朴珍景中領을 內定했다.<sup>152)</sup>

제주도에서의 5.10 選舉는 사실상 파탄을 면치 못했다. 공산폭도들은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고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불태웠다. 各面의 行政機關을 습격하고 밤에는 봉화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결국 3개선거구중 2개선거구는 선거를 할 수 없었으며<sup>153)</sup> 다음해인 49年 5월에 가서야 다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노당제주도지부의 5.10 선거반대공작은 “가장 효과있게, 가장 성공적으로 파탄시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공산당측 자료는 評價하고 있다.<sup>154)</sup>

이무렵 한라산 일대의 中山間은 낮에는 軍警이, 밤에는 공산폭도들이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sup>155)</sup> 이들은 베트남식 게릴라전법으로 낮에는 농부로 변장하고, 밤에는 정부군을 공격하였다.<sup>156)</sup> 一部 住民들은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낮에는 군경에 협조하고 밤에는 山으로 올라갔다. 最惡의 社會混亂狀態가 계속되었다.

박진경중령 지휘하의 제 11연대는 게릴라들의 道民接近을 봉쇄하고 주요거점을 포위하면서 지역소탕작전을 펴나갔으므로 그들의 주력부대는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박진경중령이 이들에게 暗殺을 당한 것은 대령으로 승진되던 날인 6月 18日 이었다.

주민부락과 연계가 완전히 두절되면서 게릴라들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먹는문제가 갑자기 심각하게 抬頭되었다. 비상계엄령아래 부락민들의 行動이 제약받기 시작했고 경비망이 擴大 強化되면서 이들은 부락에서 개역(보릿가루), 떡, 고구마, 감자를 훔쳐먹기 시작했으며 소, 말, 산돼지를 잡아 먹었다. 그리고 얼마後 이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소나무껍질, 풀뿌리, 버섯등을 도랑물에 우린 것

註: 151) Ibid., pp 634~635.

152) Ibid., p 635

153) 北濟州郡 甲區와 乙區는 투표수가 모자라 선거가 무효되었고 남제주군만 간신히 치러져 吳龍國이 當選되었다.

154) 김남식, 「남노당 연구 자료집」, op.cit., p450.

155) 夫萬根, op.cit., p52.

156) 宋孝淳, 「붉은大虐殺」(서울: 甲子文化社, 1979), p 102.

뿐이었다. 극도의 아사상태가 계속되었다.<sup>157)</sup>

한라산은 주위를 포위하여 압축할 경우 頂上에 가까울수록 은닉할 수 있는 樹木이 없는 地形이며 음료수를 구하기 힘든 곳이었다. 따라서 恒久的 山岳據點으로는 不利했다. 反對로 생각하면 정부군에 依한 추적 및 검거에 좋은 條件이었다.<sup>158)</sup>

이러한 상황에서 남노당제주도지부는 게릴라의 數를 대폭 줄이는 한편 一部를 하산시켜 부락과 산속의 게릴라들과의 연계를 맺는 소위 식량생산확보투쟁에 突入했다. 이는 투쟁보다는 생존을 爲한 對策이었다.

폭동의 주모자 金達三等이 월북한것은 이무렵이었다. 당시 北韓은 人共수립을 目的으로 南部지역에 할당된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을 선출하기 위한 「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8月 21日 황해도 해주에서 개최하였다. 제주도 대표는 김달삼, 고진희, 강규찬, 문동봉, 이정숙, 안세훈등이었다. 同大會에서 각 지방대표들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김달삼은 제주대표로써 영웅과 같은 환영과 추대를 받았다.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달삼에게 국기훈장 2급을, 이덕구에게 국기훈장 3급을 수여했다.

김달삼등은 4·3사건을 일으켜 그의 동료들을 한라산 골짜기에 몰아넣고 수많은 양민을 죽음으로 유도했으며, 좌익단체의 조직역량을 파괴한 것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었다.

김달삼, 강규찬의 뒤를 이은 김용관, 이덕구등은 人共이 수립되면 큰 變化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으므로 力量保存대신 군사적 모험을 계속했다. 이와 同時에 한사람당 6,7만원의 돈을 준비해서 제주도를 脱出, 지리산 유격대에 合流할 것과 앞으로 월동을 위해 3개월 以上の 식량확보를 계획했다. 이들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sup>159)</sup> 대신 宣撫工作이 民族陣營人士들에 依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한편으로는 토벌작전이 強化되었다. 수십차례에 걸친 生存투쟁<sup>160)</sup> 에도

註：157) 김남식, 「남노당 연구」, op.cit., p374.

158) 제주도 중앙부에 위치한 높이 1,950m의 死火山인 한라산은 고산식물인 灌木으로 덮여 있으며 강우량은 많으나 標高약 200m 내외로 부터는 食水를 구하기가 곤란한 지형이다.

김점곤, op.cit., p144

159) 김남식, op.cit., p377.

160) ① 10月 1日：道廳토벌대 습격 5名 살상하고 무장탈취 ② 10月 2日：합덕, 조천 기습하고 무기와 식량 약탈 ③ 10月 25日：서귀포경찰서 습격 ④ 10月 26日：모슬포 토벌대 습격 ⑤ 10月 28日：남원면 일대 기습等.

불구하고 세력은 점차 쇠약해 갔다. 제 11 연대에 이어 48年 12月에는 제 2 연대 (대구주둔)를 9 연대와 교체 시켰다. 49年 3月 2日 공산계릴라들의 마지막 노력이 소탕되므로써 49年 5月 15日 일단 작전이 끝났다. 4月 2日에는 西洪里의 남노당제주도지부가 습격받아 김용관, 양근, 김선환이 체포되고 49年 6月 7日에는 소위 “山사람 사령관” 李德九가 체포되어 사살되었다.

제주도에서 남노당조직이 붕괴되는 결정적 계기는 11月 7日에 있었다. 「濟州道赤化陰謀事件」(세칭: 11·7 사건)은 11月 7日을 기해 경찰에 침투된 프락치로 하여금 경찰무기고를 점거 탈취하여 모든 경찰관과 사회저명인사, 우익정당 및 사회단체 간부들을 살해한 다음 각 관공서를 모조리 불태워 제주도를 전면 장악한다는 남노당의 가공할 흉계였다. 이것은 행동개시 직전에 경찰에 침투했던 남노당프락치가 자수하므로써 좌절되었다.<sup>161)</sup>

남노당제주도지부가 점점 와해되고 이들의 군사조직인 한라산의 게릴라들은 자체 감시를 피해 상당수가 귀순하였다. 따라서 49年 10月 계엄령이 해제되었을 때 잔여게릴라는 약 200名 정도로 추산되었다.<sup>162)</sup> 이들은 1957年 4月까지 계속 投降하였다. 토벌대는 반도교육채 鄭權洙를 56年 4月에 사살하고 57年 4月에는 최후의 공산계릴라 吳元權을 구좌면 송당리에서 생포하므로써 불과 40여년전에 일어났던 濟州道 歷史上 가장 소름끼쳤던 사건이 終結되었다.

4·3 사건으로 제주도가 입은 被害는 엄청난 것이었다. 總 169 部落中 130 部落 정도가 상처를 입었고 직접적 피해가구는 15,188 가구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濟州市에 3,162 가구, 涯月邑에 5,180 가구, 翰林邑에 2,125 가구가 피해를 입었는데 中山間 住民이 많은 部落일수록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當時 濟州道 總人口 25%인 91,732名이 이재민이 되었다. 27,719名이 死亡했으며 1,080名이 重傷, 792名이 부상당했다. 또한 行方不名은 38名에 이르렀다. 이것은 濟州道人口의 약 10%가 4·3 사건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폭동진압을 爲해 投入된 兵力된 延人員 1,649,471名에 달했고 이들은 공산계

註: 161) 초기에는 2천명 이상으로 추산되었음.

162) 강용삼 이경수편저, op.cit., p642.

릴라 7,893名을 죽였으며 2,004名을 歸順시키고 7,000名을 生捕했다. 한편 군인과 경찰의 피해도 컸는데 209名이 죽고 142名이 다쳤다.

4·3사건은 또한 주민들의 生業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예를들면 한라산 중산간지대의 수만ha의 농토가 황무지로 변했고 공산계릴라들이 소나 말은 마구 잡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고려때부터 번성했던 축산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sup>163)</sup>

공공기관과 산업시설에 對한 피습과 燒失은 228棟, 교실 224棟으로 이를 復舊하는 데에도 10여년이 걸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道民들 사이에 어느새 생긴 뿌리깊은 불신풍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0年代 前半까지 지속되던 신뢰감과 단결심은 4·3사건을 겪으면서 허물어졌다.

더군다나 공산계릴라들이 죽은 것은 마땅한 결과이겠지만, 무지렁이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덩달아 설치다가 죽고 다쳤다.<sup>164)</sup>

이러한 피해는 當時 김달삼을 비롯한 극좌적 맹동, 모험주의자들인 남노당제주지부 간부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투쟁을 指示할 때, 결정적 시기, 또는 결정적 투쟁이라고 規定하므로써 長期的 戰略이 뚜렷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혀 目的의식이 缺如된 幻想的이기까지한 虛構를 追求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들의 出世主義的, 英雄主義的, 모험주의적 봉기는 처음부터 실패의 운명을 전망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註: 163) 가축피해: 소 17,860頭, 말 6,009頭, 돼지: 22,989頭, 기타 25,413頭  
山林: 伐採級放火 1,173.3町步 26,029㎡  
농작물: 곡류: 135,415石 감자: 4,196,113관 면화: 97,356군 유채: 899,860관  
김정근, op. cit., p171.

164) 夫萬根, "濟州道の 歷史 4: 4·3사건의 상처는 이제 다 아물었나" 뿌리깊은나무편, 제주도 (서울: 뿌리깊은나무사, 1983), PP83-84.

165) 제주도는 서울로 부터 약 450km의 육해공간으로 격리되어있어, 제주로 부터 赤化를 擴大하여 北上을 시도한다는 것은 이 공간- 특히 해면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수 없는 폭거였다. 또한 제주도는 24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해안선만 봉쇄하면 外部로 부터 원조가 불가능하므로 고립된 투쟁권이 되고 만다.

## 第五章 結 論

오늘날의 歷史를 決定했던 가장 重要한 時期인 解放直後 1년동안, 朝鮮共産黨은 가장 強力한 政治團體로 浮上할 수 있었다. 그것은, 비록 가혹한 日帝의 탄압이나 分派主義문제가 심각한 内部갈등을 造成하고 있었으나, 공산당은 국내에서 가장 強力한 日帝에의 抵抗勢力의 하나였고 그들의 경쟁상대인 국내민족진영이 아직 政治活動의 態勢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때 組織活動에 敏活한 그들은 재빨리 分散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重要하고 分明한 事實은 占領初期 몇달동안 美國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幷護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朝鮮共産黨과 같은 先위단체로 둘러싸여있는 보잘것 없는 조직과 세력은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승만이나 金九같은 強力한 우익지도자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을때, 朝共은 呂運亨의 建準과 人共을 利用하여 政權에의 挑戰을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朝鮮共産黨은 党的 傳動帶(Transmission Belt)로서 各種 외곽단체를 교묘하게 조직하여 大衆政黨으로서의 기반을 다졌으며 박헌영을 한국공산주의운동의 中心으로 하여 政權장악의 高地에 앞서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45年12月 신탁통치문제는 조선공산당 몰락의 始發點이었으며 反面 右翼陣營(反託陣營)에게는 逆戰의 기회였다. 이들은 민족주의문제를 들고 나와 左翼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남한에서는 左·右의 對立이 分明한 형태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46년에 들어와 美蘇關係가 냉각되면서 미국은 공산당을 억압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이 공산당에 對해 強硬한 態度를 취하게된 결정적인 사건은 46年 5'月의 精版社僞幣事件이었다. 주둔초기의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으로부터 지나치게 고압적 방법으로서의 급격한 전환은 남노당으로 하여금 過격한 戰略에로의 移行을 促進시켰다.

공산당은 지금까지 「國際民主主義戰線」路線에 立脚하여 미국을 해방자로 규정

하고 合法運動을 標榜해 왔던 方針을 바꾸어 폭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46年7月 박헌영의 '새戰略'은 미군정에 對한 宣傳布告였으며 挑戰이었다. 이것은 9월총파업과 10月폭동으로 表出되었는데 모험주의적 極左的 鬭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黨組織에는 아무런 利益도 없었다.

남노당과 미군정, 우익민족세력이 급속히 關係가 惡化된 것은 48年1月 유엔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실시를 결정했을때였다. 여기에서 남노당은 非合法 폭력투쟁에 依한 정권저지투쟁을 치열히 전개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운명과 직접적인 關係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노당의 5·10선거 반대를 위한 非合法 폭력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에 일어난 4·3사건은 남노당의 투쟁형태를 非合法 무장폭력 투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다.

解放이 되고 나서 제주도에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朝鮮共産黨濟州島委員會가 中心이 된 左翼勢力이 대중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46年初부터는 서울 中央의 지시에 따라 파업, 시위, 맹휴等 여러 形態의 파괴공작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46年 11月23日 조선공산당제주도위원회가 南勞黨濟州道委員會로 名稱을 바꾸게 되면서 더욱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46年7月 朴憲永의 이른바 「새전략」으로 본토에서 10月폭동을 비롯한 非合法 폭력투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남노당제주지부는 「3.1節 行事」를 기점으로 적극적인 대중투쟁에 依한 폭력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어 48年 유엔決意에 依한 單獨選舉反對를 目的으로 한 「2.7鬭爭」을 暴力化로 끌고 나간 남노당제주도지부는 이를 통해서 5·10선거를 반대하는 4·3무장폭동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에 있었던 4·3폭동은 남노당이 5·10選舉를 阻止하기 위해 무장폭력전술로 임한 工作中에 가장 큰 규모의 것이었다.

일본유학생 시절에 조선공산당에 參與했거나 중국공산당의 八路軍으로 종사했던者들로 구성된 남노당제주도지부의 指導部는 그동안 다져진 대중조직의 기반과 무장력을 가지고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地理的·歷史的 여건, 當時 美軍政과 本土人, 경찰에 대한 도민의 敬遠思想, 그리고 47年 3·1節 行事時의 경찰과의 對峙에서 빚어진 충돌사건, 西靑等의 反共青年團體와의 충돌로 인한 敵對感情 高潮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利用하여 군중을 조직하고 4·3폭동으로 내몰았

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4·3 폭동은 時間적으로 6年여에 걸쳐 全濟州道地域과 道民이 이에 피해를 입는 엄청난 아픔을 주고 우리의 軍警討伐隊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

4·3 폭동은 이미 6.25를 豫告하고 있는 事件이라고 結論짓고 있는 존·매릴 (John Merrill) 教授의 지적은 다음의 두가지 點에서 그러하다 하겠다.

첫째는, 4·3 폭동以後 南勞黨의 파괴공작은 全國的 規模의 테러, 파괴, 습격 등의 폭력투쟁으로 전개되어 같은 민족일지라도 공산주의자들은 理念과 革命을 爲해서는 폭력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음을 暗示해 주고 있었다.

둘째, 4·3 폭동은 分斷을 戰爭으로 解消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赤化路線을 나타내 주고 있었으며 이 戰爭은 가장 典型的인 內戰이고 가장 철저한 總力戰일 것이라는 點을 보여주는데서 그러하다 하겠다.

全濟州道民의 가슴속에 깊은 슬픔과 증오심, 그리고 相互不信感을 심어 놓은 4·3 폭동은 朴憲永과 南勞黨 그리고 그 指揮下의 南勞黨濟州道支部의 공산주의자들에 그 責任이 있다. 그들은 政治權力 變動의 屬性으로 보아, 美軍政과 美國勢力圈안에 있는 南韓에서 特別히 地理的 與件으로 보아 그 沒落이 어찌면 當然한 歸結임에도 불구하고 被占領國 공산주의자들이 대체로 경험했던 幻想, 即 極左 盲動路線, 小英雄主義的 모험주의에 빠져 全濟州道民에게 엄청난 아픔과 受難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4·3 사건은 6·25以前의 6·25였다. 左·右翼의 對立이 결국은 6.25라는 內戰으로 擴大되었듯이, 分斷에 依한 左·右對決狀態가 持續되는 限 또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들이 再現될 수 있음을 暗示해 주고 있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歷史的 교훈이 될만한 事件이었다.

## 參 考 文 獻

### ○ 單 行 本

- 金南植編, 「南勞党研究資料集」第1輯, 第2輯(서울: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  
研究所, 1974)
- 金南植, 「南勞党研究」(서울:돌베개, 1984)
- \_\_\_\_\_, 「實錄南勞党」(서울:新現實社, 1975)
- 金點坤, 「韓國戰爭과 勞動党戰略」(서울:博英社, 1973)
- 朴駟遠,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서울:세계, 1984)
- 한창수編, 「한국공산주의 운동사」(서울:지양사, 1984)
- 金鍾範, 金東雲,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서울:돌베개, 1984)
- 康仁德, 「공산주의의 統一戰線에 關한 研究」(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77)
- 國際科學文化研究所編, 「勝共論」(서울:良書閣, 1974)
- 洪泰植, 「韓國共產主義運動研究와 批判」解放前篇(서울:三省出版社, 1969)
- 변형윤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서울:까치, 1985)
-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서울:博英社, 1976)
- 中央情報部編, 「北韓對南工作史」I, II(서울:中央情報部, 1972)
- 姜龍三, 李京洙編著, 「濟州百年」(서울:태광문화사, 1984)
- 夫萬根編, 「光復濟州 30年」(서울:文潮社, 1975)
- 宋孝淳, 「北傀挑發三十年」(서울:北韓研究所, 1978)
- \_\_\_\_\_, 「붉은 大虐殺」(서울:甲子文化社, 1979)
- 張福成, 「朝鮮共產党派爭史」(서울:돌베개, 1984)
- 禹樂基, 「濟州道」(서울:韓國地理研究所刊行部, 1980)
-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 : The movement* 2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 J.V. Stalin, *The Foundation of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5
- Bruce Cummings, *The origins of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47*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1981
- Bruce Cummings eds,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 Washington Univ. Press 1983

## ○ 論 文

- 丁世鉉, “毛澤東의 對外觀 展開에 關한 研究”(서울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高性俊, “東北亞情勢變動과 統一安保 政策上의 濟州島의 座標”(서울 : 국토통일원, 1978)
- 朴修一, “北韓소비에트化의 戰術的 性格”,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 7집 (서울 : 자유아카데미, 1978)
- 孔翼斗, “共產革命戰略에 있어서의 統一戰線戰術”, 北方研究論叢 제 2 권 (서울 : 자유아카데미, 1976)
- 金學俊, “韓國戰爭과 北韓의 政治”, 北韓學報 第三輯(서울 : 北韓研究所, 1979)
- 金學俊, “歷史는 흐른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 캠페인 : 1985), 朝鮮日報
- 李敬南, “해방政局幕前 幕後 인간군상”(政經文化 : 1983年 8月號)
- 黃顯鳳, “共產主義革命戰略과 民族主義”, 「北韓과 共產戰略」(서울 : 아카데미, 1976)
- John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Bruce Cummings eds. *Child of Conflict :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53* Seattle Washington Univ. press, 1983
- 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1980.

**Abstract**

**A Study of Communization Strategy of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 In related to the 「Cheju-do Rebellion」 —

**Chong Min-hye**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h Seong-Joon*

After the 1945 Liberation of Korea, Korea Communist Party used all sorts of strategies —legally or illegally— under the ultimate struggle object of accession to political power.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ccupied in South Korea, however, gave a great shock to SKLP. Therefore, with all the armed strife SKLP lost its influence in South Korea by degrees. In contrast, communists in North Korea had no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ir government under the occupation of the U.S.S.R.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didn't pursue a consistent policy ideologically and realistically from 1945 to 1948. Taking advantage of the confusion, the Left of South Korea could extend its influence under the leadership of Yo Un-hyong and Pak Hon-yong. But, after the 1945 Moscow Conferenc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changed its policy to a coercive one rapidly. The result of the change weakened capacities for strife of SKLP and made SKLP quicken switching to rabid strategy.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5.

The truly major military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came from Communist-led revolts. The most serious of these was undoubtedly the Cheju Island uprising which broke out on April 3, 1948. This revolt, Communist-planned and-led, involved the entire Cheju Island.

On April 3, 1948, led by Communist guerilla bands rushing down from Halla mountain, the people of the island rose up. The revolt was timed as a protest against the scheduled national elections in South Korea. Government offices and police stations were attacked by a force composed of Communist Youth League members and Communist sympathizers within the regular military forces. Defections snowballed and, for a time, the entire island was almost under Communist control. Thus, the Rhee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elf as an independent state, was faced with an extremely serious situation in its southernmost region.

The rebels on Cheju fought on stubbornly, gradually retreating into the inaccessible mountains of the interior to continue as guerrillas. The rebels were finally subjugated by a punitive force after great bloodshed.